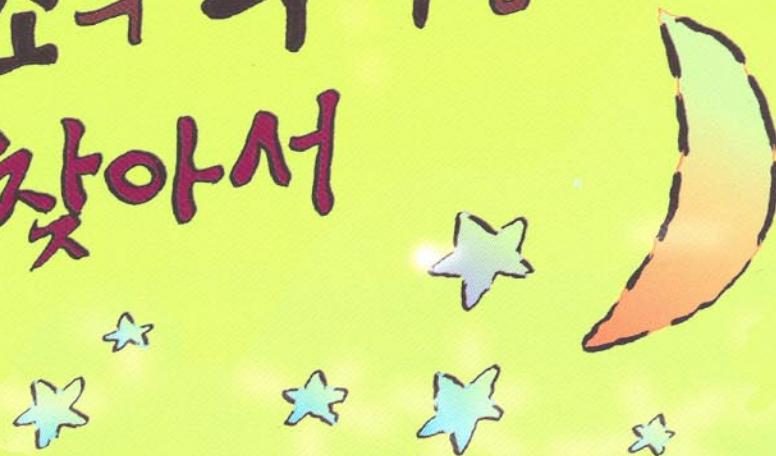


만화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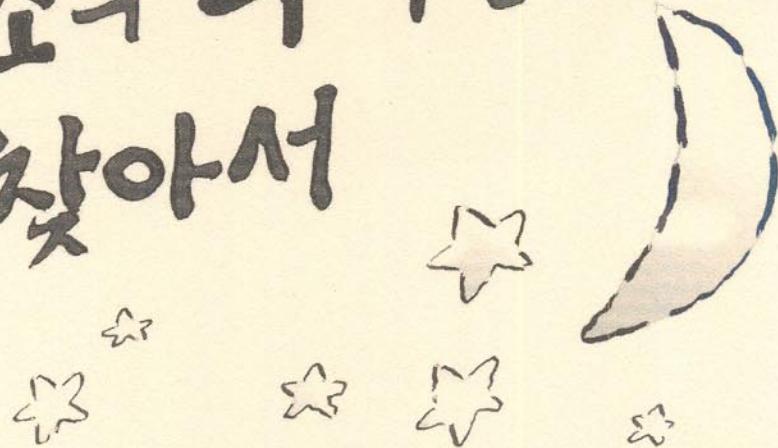
"속초의 뱙리"를 찾아서



속초시 · 속초문화원

만화로 보는

“속초의 뱙리”를 찾아서



속초시 · 속초문화원

發 刊 辭



문화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간 우리고장의 향토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이 걸어온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향토문화 교육교재가 발간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교재가 발간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주신 추진위원·편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초는 도시역사가 오래 되지 않은 관계로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고장은 기원전 9세기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음이 조양동선사유적의 발굴조사 결과 증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삼국시대 신라 화랑의 훌륭한 심신수련의 장으로 그리고 많은 고승들의 수도정진의 도량으로 활용되었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환경을 간직한 고장이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향토문화 교재는 우리시민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향토의 얼을 선양하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다양한 분야를 수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제일의 관광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고장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있어, 우리시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는 훌륭한 관광안내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향토뿌리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관광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만큼, 많은 시민과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큰 관심 속에서 깊이 읽어주시길 바라며, 우리고장의 향토색 짙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자원을 영원히 보존·전승하고, 널리 소개하는 향토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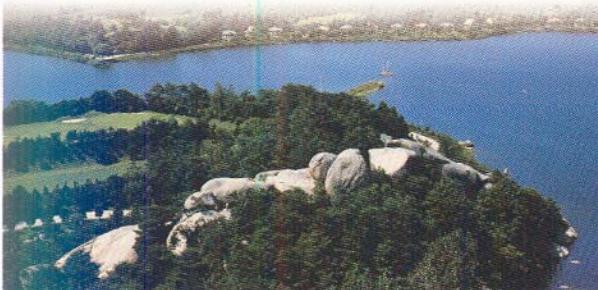
2000. 12

속 초 시 장 동 문 성

속초팔경(八景)



상도문의 학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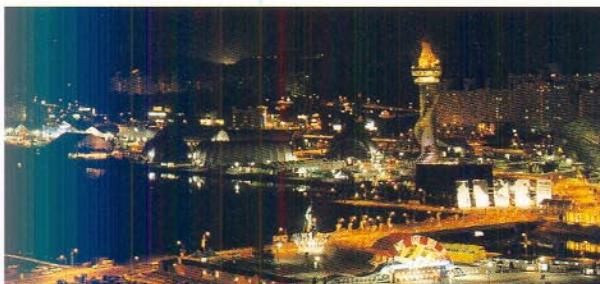
영랑호의 범바위



영금정의 속초등대전망대



대포의 외옹치



청초호와 엑스포타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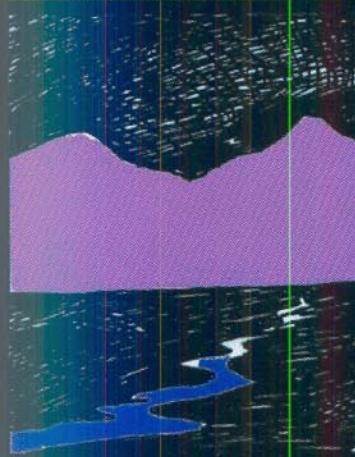


내물치의 설악해맞이 공원



청대산에서 본 시가지 전경





요즘 금강산이 인기인데 저도 '제 2의 금강산'이라 불릴 만큼 빼어나게 아름답답니다.



그런데 왜 「설악」이라고 이름 붙여졌는지 궁금하죠?



음력 8월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하는 눈이 하지가 돼서야 녹는다 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신성하고 숭고하다하여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가지 별명이 있는 것처럼

설산(雪山) · 설봉산(雪峯山)
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또, 설악산은 기암괴석,
맑은 물 폭포로도 유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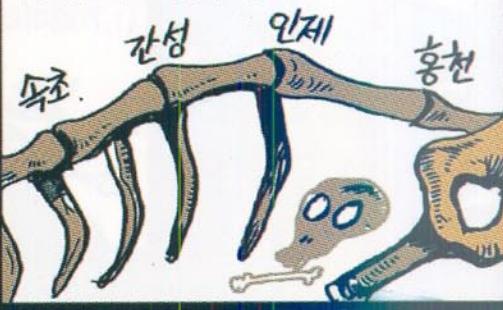
설악산이 만들어진 돌들은
대청봉을 제외하곤
여러종류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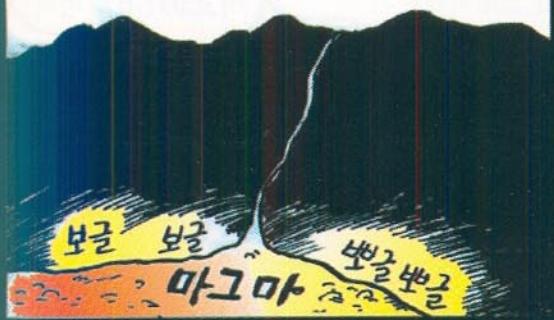
돌이 아름답다고 가지고
내려와서는 안되겠지요



화강암은 간송, 속초, 인제, 홍천으로
연결되는 지대에 있으며 설악산의 뼈대
구실을 하고 있어요.



화강암은 지하 수 키로미터 이상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에서 굳어져 만들어지거나
다른 암석이 녹아서 굳어진 암석입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맥이 1,708미터까지 솟아 오른 것은
지각 또는 땅이 높이 솟아 오른 일이 있거나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해 쪽은 가라앉거나 무너져 내려서 깊은
골짜기와 높고 험한 모양이 되었으며



이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설악산은 맑은 물을 품고 있다가 서울시민이 쓰고 마시는 한강 하류까지 물을 흘려보내고 양양 남대천(南大川)과 속초의 쌍천(雙川)을 통해 동해바다로 흐릅니다.



태백산맥에서 우리 지역으로 흐르는 하천들은 짧고 경사가 심한데 이런 하천의 하류에는 논으로 이용됩니다.



맑은 물과 송사리, 미꾸라지, 봉어, 물방개, 개구리, 소금쟁이 등이 노닐고 헤엄을 치고 놀았던...
지금은 물이 많이 줄고 생물들이 오염으로 인해 자취를 감춰 버린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름다운 높은산과 바다가 바로 코 앞에 펼쳐진 곳은 전세계적으로도 속초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깨끗하고 맑고 푸른바다가 넘실거리는
동해안...



남쪽은 암석해안이고 화강암이
발달한 북쪽은 모래해안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요

동해안은 강릉을 경계로 북쪽과
남쪽의 지질구조와 지형이 많은
차이가 있어요



동해사면은 급경사를 이루어 흥수시 많은 모래흙이 바다로 운반
되어 바다를 고립시켜 영랑호와 같은 석호(潟湖)와 청호동마을
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비듬이(?)

물을
막아버렸구먼



속초지역의 해안은 대포 외옹치를 경계로
북쪽해안은 모래해변이 발달되어 있고
남쪽해안은 바위덩어리로 되어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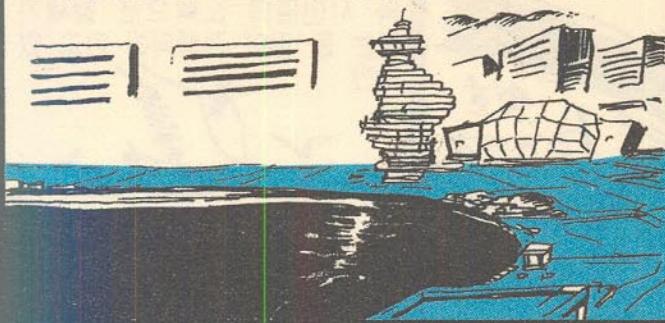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속초는 옛날 신라의 화랑
들이 머물다 갔다는 영랑호와
그리고 청초호, 2개의 석호(潟湖)가 있습니다.



영랑호는 장사동, 금호동, 영랑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넓이는 약 1.2키로미터, 둘레 8키로미터 정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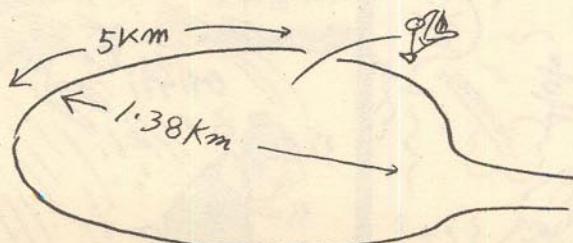
속초시에 있는 2개의 석호 중 「관광엑스포」가 열렸던 남쪽에 있는 청초호는 속초항의 항구로 쓰이면서



생활 하수 쓰레기 등에 의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려 여러분들은 예전에 맑게 빛났던 푸른 물빛을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초호는 청학동, 교동, 조양동, 청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넓이는 1.38킬로미터, 둘레는 5킬로미터 정도이고, 생김새가 목이 잘룩한 항아리 모양인데 최근에 매립으로 인해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석호는 지형적으로 배들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천연의 조건을
가졌기에 항구로 사용되고 생활하수도 흘러들어



기형 물고기가 잡히는 등 심하게 오염됐는데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철새가 찾는 등 많이 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환경은 망가지기 쉬워도
되돌려 놓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많은 돈이 듭니다.

제자신이
청춘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처럼



속초는 우리나라의 중간, 동쪽에
속해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성 기후가 특징입니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가 나타나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의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한랭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특히 속초는 설악산을 서쪽에
두고 동쪽으로 동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우나 가뭄, 폭풍
이나 대설 등 다양한 기상악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영동 북부지방에 위치한 속초는 서쪽에 위치한 태백산맥을 경계로

같은 위도상의 인제, 춘천 등과는 아주 다른 기후를 나타냅니다.

겨울에는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같은 위도상의 서해안이나 내륙보다 따뜻한 반면,



여름에는 동해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서늘하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동해로 동해로

속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적게 오는 편이며, 봄철에는 비가 적게와 봄 가뭄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는구나!

몇년간 타지방은



200~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과 피 땀흘려 가꾼 농작물이 잠기거나 떠내려가곤 하는데

공해물질 배출로 지구의 기상 변화가 집중호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홍수피해는 지형적 특성과 배수로 정비의 부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속초는 지형적 특성상 많은 비가 내려도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 홍수피해는 거의 없습니다.



속초지방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인데 강원도에서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



봄철에는 약 200mm로 1년 강수량의 16%를 차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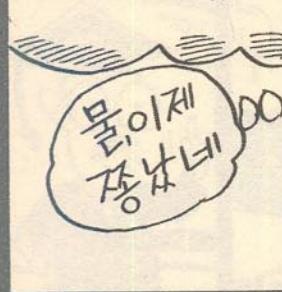
여름철 강수량은 약 600mm 정도로 1년 강수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1986년 768.8mm고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해는 1997년으로 246.6mm를 기록했고



속초는 지형이 급경사를 이루 비가 올 때 물을 담아놓지 못하므로 갈수기에는 물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9월 강수량이 200mm 정도로 다른지방 평균 강수량인 150mm내외 보다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



이는 9월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으며 가을 장마의 영향도 받기 때문이지요



겨울철 강수량은 약 150mm 정도로 1년 강수량의 약 10%내외, 눈이 많이 오거나 적게 내리는 것에 따라 좌우되며



1969년 겨울에는 눈이
123.8cm가 내리기도 했고



1995년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158.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속초의 1년 평균기온은 11.9°C 로서
비교적 온화한 기후인데



속초의 기온이 다른 지방에 비해 온화한 것은 동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동해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때 유입되는 북동풍이 바다를 지나 육지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습기를 지닌 채 태백산맥에 부딪힐 때 많은 눈이 내릴 때가 많습니다.



또, 속초의 풍속은 강한 편이고
(평균풍속 2.9m/s)



가장 나쁜 기상의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폭풍인데, 연 폭풍
일수는 16일로 어느 지역 보다 많은 편입니다.



여기 하얗게 내린게
서리란다

속초지방의 첫 서리는 대체로 11월말에서 12월 초에 나타나고, 첫 서리가 가장 빨리 나타난 것은 1983년 10월 24일이며 가장 늦게 나타났던 해는 1984년 4월 8일입니다.



어릴적 겨울에 가장
기뻤을 때는



속초지방의 첫눈은 대체로 12월에 나타나지만
빠른 경우에는 11월 초순중에 내리기도 하죠.



가장 빨리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10월 25일이며
가장 늦게 눈이 내린 때는
1980년 4월 14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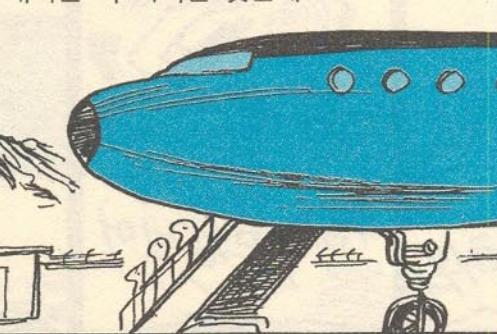


마지막 눈은 대부분 3월경에
나타납니다.

하얀 눈송이를 받아먹기도
했지요 지금은 안될 일이지만



최근엔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대만이나
태국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눈이 많이
내리는 이 지역을 찾는데



4계절이 뚜렷하여 눈구경과 눈썰매 등 눈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좋은 자연환경을
물려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초지방의 첫 얼음은 11월경에 나타나고 마지막
얼음은 3월경에 나타나는데 가장 빨리 얼음이
얼었을 때는 1984년 10월 29일이며,
가장 늦게 얼음이 얼었을 때는 1984년 4월 20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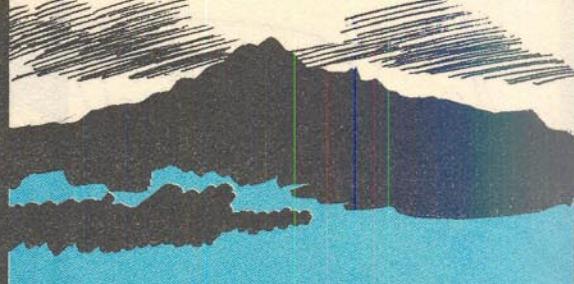


고드름
끓어먹기

그리고

예전엔 고드름을
깨물어 먹곤
했습니다 과자대신

설악산의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은 고산과
아고산대의 식물이 많이 자라게 되는데



눈잣나무, 설악눈주목, 눈향나무, 털개불알꽃, 흥월굴, 노랑만병초, 월굴, 금강봄맞이꽃, 등 남한에서는 주로 설악산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자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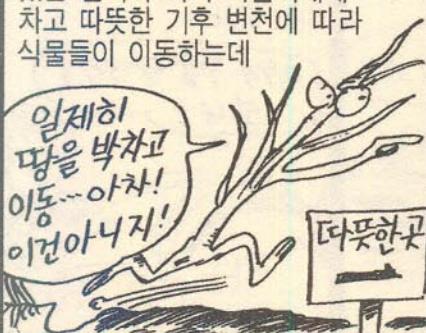
눈측백, 난쟁이붓꽃, 솔나리, 바람꽃, 흰인가목, 붉은인가목, 만주송이풀, 등대시호, 기생꽃 등의 북방계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설악산 고지대에 북방계 식물이 많이 자라는 것은 남북으로 뻗어 있는 산맥이 과거 지질시대에 차고 따뜻한 기후 변천에 따라 식물들이 이동하는데

기후가 차가워지면 식물분포지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게되고 반면에 기후가 따뜻해지면 그 분포지역이 북으로 이동합니다.

일부식물은 기온이 낮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악산 내설악, 외설악을 포함해 현재까지 11,200여 종 상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악산의 대표적인 나무의 종류로는 신갈나무, 소나무, 당단풍, 졸참나무, 서나무, 쪽동백나무, 물푸레나무, 생강나무, 전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굴참나무,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서식·자생하는 특산물로서 설악산에서 자라는 한국 특산식물은 모두 71종류나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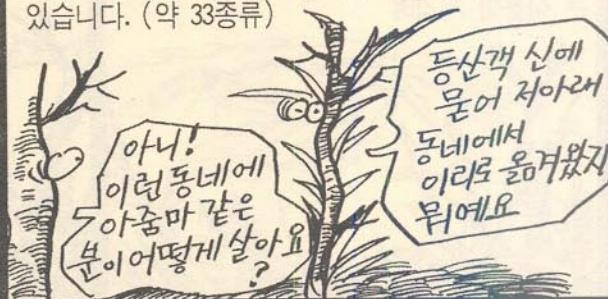
이 중 자연생태계 훼손과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놓여있거나 희귀식물들이 있어 함부로 식물을 뽑거나 꺾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나동네 내동네가
왜 없어 있지



주로 분재용, 청원수용, 등산로 확장, 산나물 채취, 화훼용, 약재로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마구잡이 개발과 몰래 파가져 가거나 먹어치워 없애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모래 해안과 암석해안은 염분이 많아 식물이 자라는 데 적합하지 않는데도 잘 자라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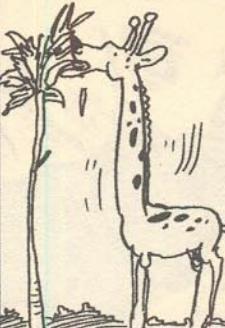
물 흡수의 기회가 많은 내륙으로 갈수록 잎과 줄기의 양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도 인종이
다르듯



식물이나 동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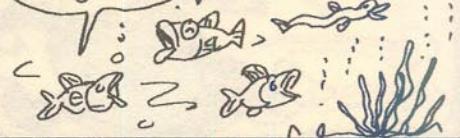
처해진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며
살아온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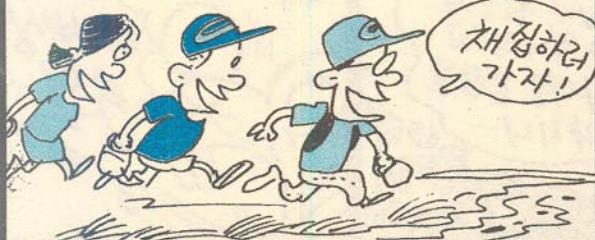
영랑호와 청초호 그리고 저수지와
웅덩이 등에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물도 정화사려
주고요

풀이 있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생기지요



설악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유입되는 쌍천과
청초천 등의 소하천과 농수로 주변에는
하천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속초는 습원식물을
관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
울챙이
알이다!



앞다리가
쭉! ♪~



뒷다리가
쭉! ♪~



설악산에서 과거의 문헌과 동물¹의 흔적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총 39종의 포유동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설악산은 물론 남한에서는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동물이 호랑이, 대륙사슴 등이
있습니다.

애들아
호랭이 떴다
긴장해라!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동물로 지정하고 있는 동물로서



하늘다람쥐, 곰(반달가슴곰), 산양,
사향노루, 늑대, 여우, 표범 등이며
이들 중 일부도 최근 설악산에서
관찰되지 않고 있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타 지역에 호랑이,
표범 출몰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밭자국을 남겼지만
존재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형 동물들은 과다한 등산객과 연중무휴의 입산 등 인간의 간섭으로 이들의 서식 환경에 변화를 주어 그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종류로서



수달(멸종위기 동물), 멧돼지, 오소리, 너구리, 노루, 고라니, 노랑목도리 담비, 족제비 등이 있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적은 천적인 포식동물의 감소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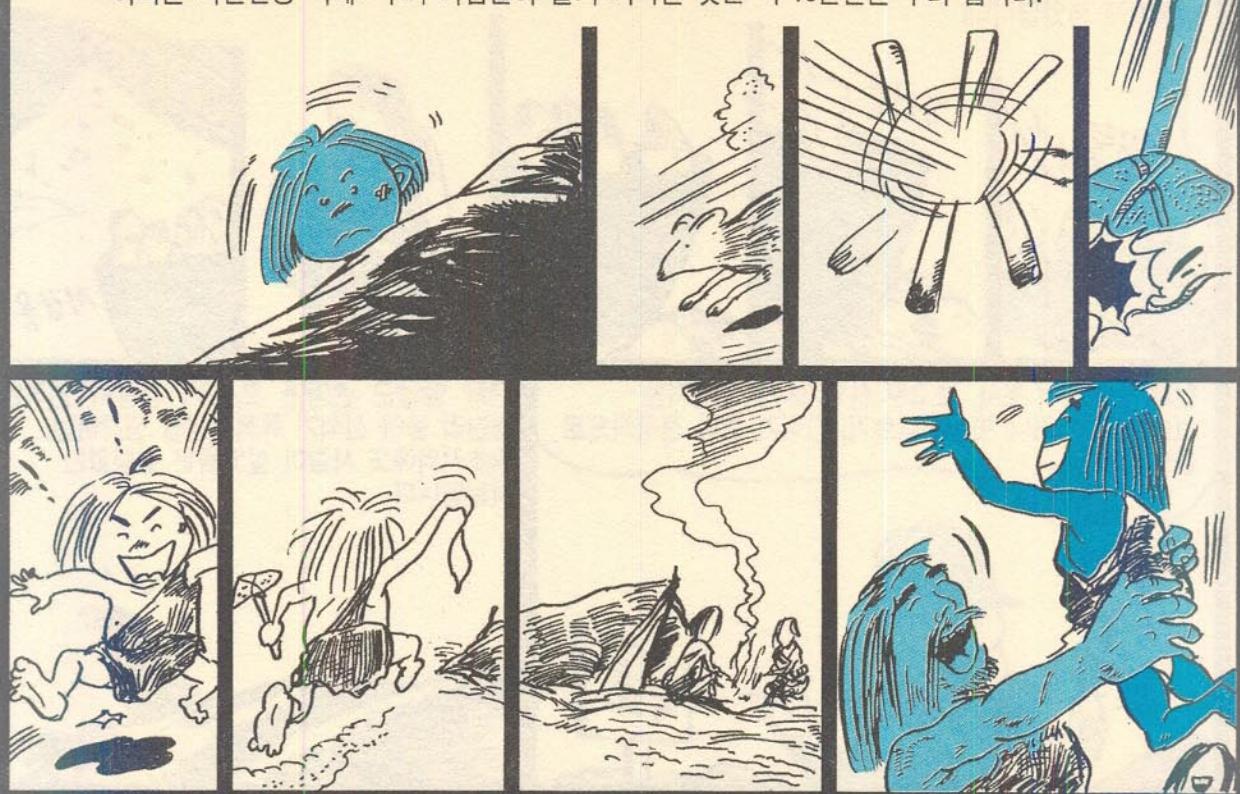
설악산과 속초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216종이나 됩니다.

설악산에서 조사된 파충류는 13종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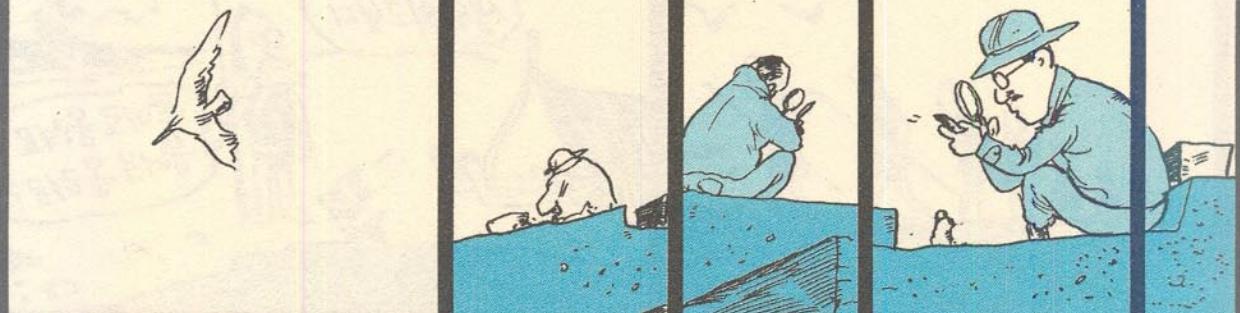
설악산에서 조사된 담수어(버들치, 쉬리, 금강모치, 피라미, 참붕어 등)는 총 61여 종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환경 속에 우리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년전 부터입니다.



해방 이후 많은 발굴 조사를 통해서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확인 하였는데

속초 지역에서는 아직 구석기시대 유물,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에 인근 지역인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에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속초 지역도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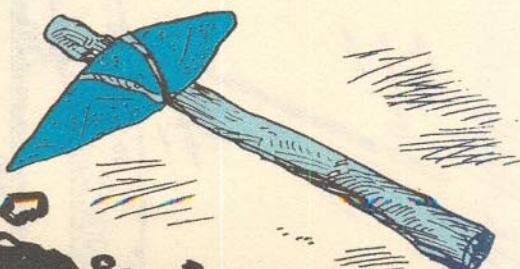
(일본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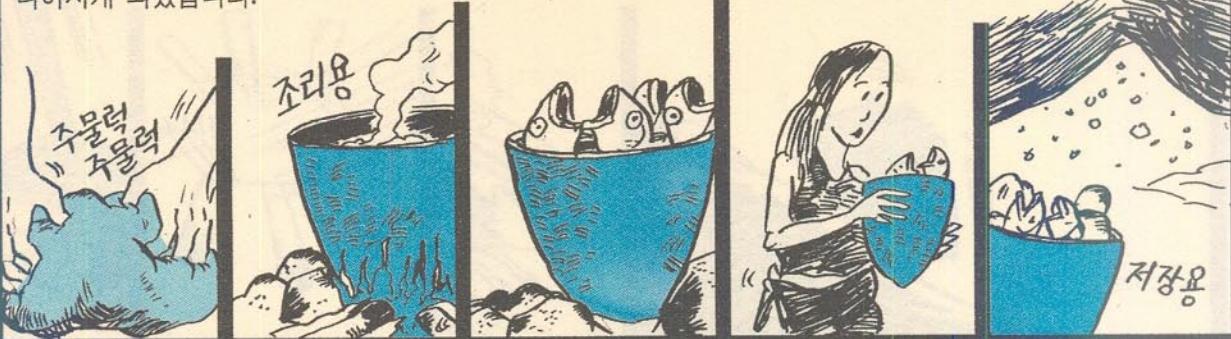
있지도 않는 구석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유물을 미리 땅에 묻고 거짓 발굴을 했다더군요

역사 왜곡도 어느정도지...

신석기시대는 B.C. 6000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돌을 갈아서 여러 가지 형태와 용도를 가진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또,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서 토기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저장할 수 있게되어 생활이 나아지게 되었답니다.



현재 속초에서 조사, 보고된 신석기시대 유적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빗살무늬토기, 간석기 등이 전국적으로 출토되고 있고

근처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등이 신석기 유적지임을 생각하면, 속초지역에도 사람이 살았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속초에서 유적지의 발견 가능성에
크다는 것은 이곳이 원시시대 사람들의
이동경로이고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강가나 바닷가에서 생활하였다는 점 때문입니다.



신석기시대에 이어 B.C. 1000년경부터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생산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전문적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났고



청동기에 이어 B.C.400년경 부터는 철기가 쓰여지기 시작하였는데 청동기 보다 강한 철기로 다른 부족을 침입하는 등 부족간의 세력확장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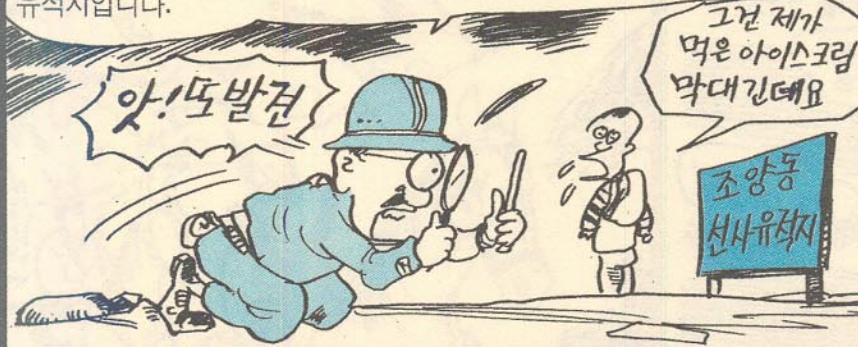


속초 장사동 지역(현, 속초고등학교 앞산)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간돌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이 1980년 나기봉씨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이 유물은 현재 「강원도 향토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 장사동
청동기시대
유물

또,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2년 발굴된 조양동 유적·유물로 보아 이곳 일대는 선사시대이래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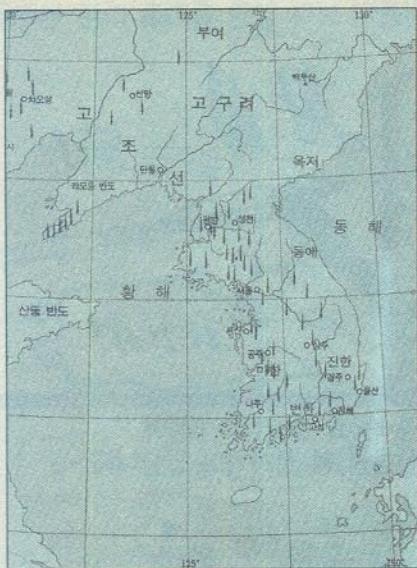
속초 조양동 일대는 낮은 구릉과 평야지대고 청초호와 접하고 있어 옛날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지배·피지배 관계가 나타나고 이것이 발전하여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 즉, 군장이 지배하는 군장 국가가 생기는데



그 초기 국가로 강원도 동해안에 「동예」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예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고구려에 병합되었습니다.





▲동예의 영역



고구려 때의 양양 이름은 「의현현」 다른말로 「이문현」이었고, 고구려 때 간성의 이름은 「슈성군」, 다른 이름으로 「가라흘」이었는데



고구려에서 신라로 속하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 17년부터 신라에 속하게
된것으로 추정됩니다.



그후 속초 · 간성 · 양양 지역은 신라의 북상에 따라



신라 때 양양은 익현에서 익령으로 고쳐졌고,
간성은 슈성에서 수성으로 고쳐져 9주 중
명주에 속하였는데, 명주의 중심지는
오늘날의 강릉입니다.



속초의 영랑호는 신라 화랑「영랑」에서 그 이름이 유래 되었습니다.

화랑
영랑



▲영랑호

화랑도는 지도자인 화랑과 그를 따르는 무리인 낭도로 구성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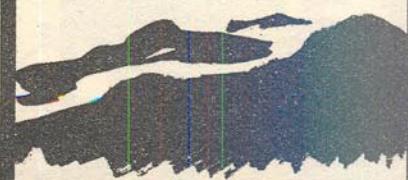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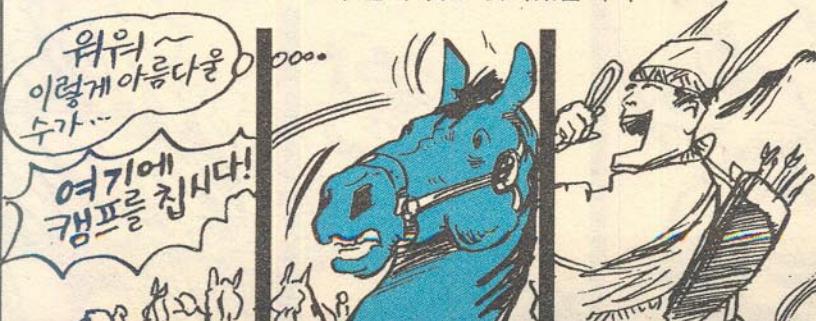
그들은 일상생활의 규범과 옛전통을 배우며, 각종 제전 및 의식을 쌓고,

수렵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을 익히며, 협동과 단결의 정신을 기르고 강인한 체력을 연마하였습니다.



화랑도들은 국토순례를 중시했는데 그 중 금강산과 관동 8경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방은 그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속초의 영랑호를 비롯하여 통천 총석정의 사선봉, 고성 삼일포, 간성 선유담, 강릉의 경포대, 한송정 등에는 화랑들의 옛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장은 화랑들 뿐만아니라,
고승들도 즐겨 찾아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신라 진덕여왕 6년(652) 자장을사에 의해 신흥사의 전신인 향성사가 현재 켄싱턴호텔 자리에
창건되었고, 그 외에 법흥왕 7년(520)에 아도화상에 의해 건봉사의 전신인 원각사가,
문무왕 11년(671)에는 의상대사에 의해 낙산사,
신문왕 8년(688)에는 원효대사에 의해 영혈사,
혜공왕 5년(769)에는 진표율사에 의해 화암사가 개창되었습니다.
선종의 대사찰 진전사, 선림원도 이때 세워진 사찰인데,
이러한 사실은 이 고장에서 불교문화가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속초

고려는 신라말에 지방에서 성장한 호족들이 연합하여 건설한 나라 였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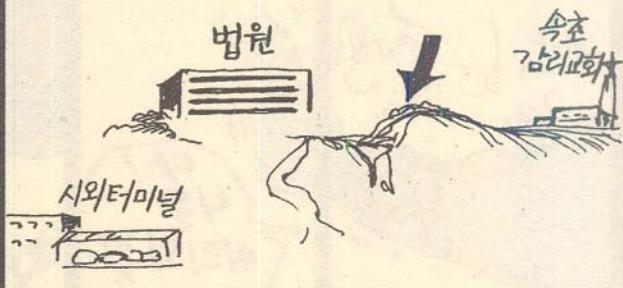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지방의 여진족은 현종 2년(1011)부터 숙종 2년(1097)까지 약 80여 년 동안
동해안에 출몰하여 노략질을 한 것이 20여회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리하여 고려는 여진의 침략을 당한 취약지역에
성을 쌓아 대비하였는데



속초 장안골(법원과 속초감리교회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 마을의 옛이름)에 남아 있는 성터도 이때
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척산에 남아 있었다는 만호첨사(萬戶僉使)터나, 오늘날의 청초호인 쌍성호(雙成湖)에 만호영(萬戶營)이
있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는 당시 동여진의 해적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기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제국을 건설한 몽고는 고종 18년(1231) 고려에 침입해왔고, 제 5차 침입 때는 강원도에 침입하였고, 고려 후기에 왜구는 전국의 해안은 물론 내륙까지 침입하여 살인, 방화, 약탈 등을 자행하였는데 무려 42년간 471회나 침략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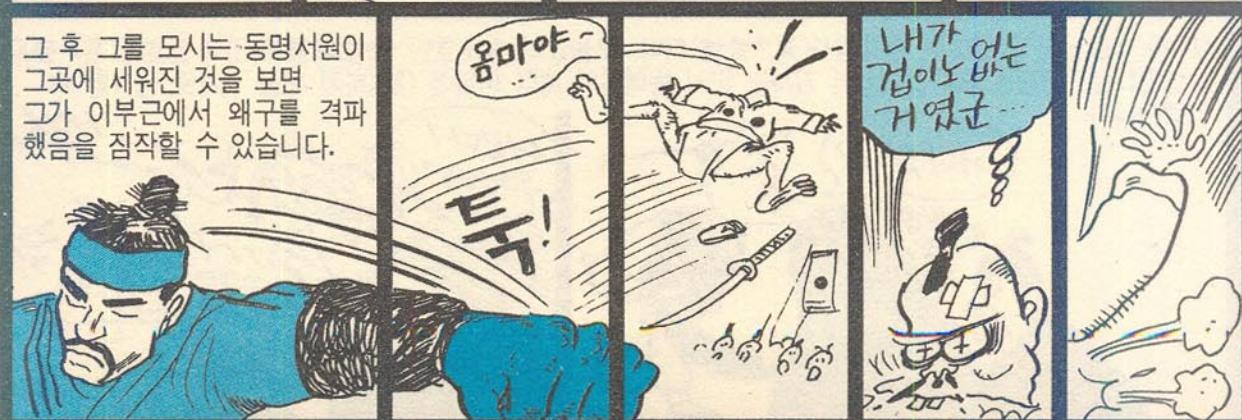


속초 인근의 침입을 살펴보면, 우왕 9년(1383) 10월 왜구가 동산현에 침입한 것을 원수 이을진, 부원수 권현룡, 병마사 곽충보 등이 격퇴시켰고,

또 강릉도 상원수로 활약하면서 왜구를 격파한 조인벽이 말년에 지금 낙산해수욕장 부근인 양양 조산리에 은거했고,



그 후 그를 모시는 동명서원이 그곳에 세워진 것을 보면 그가 이부근에서 왜구를 격파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속초

강원도는 근세조선 이후에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비슷한 행정 구역도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원도는 처음에 고려말에 형성된 교주강릉도의 이름을 바꾼데서 출발하였습니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강원도라는 이름은 태조 3년(1393)에 생긴 것이며, 1395년에 충청도에 속해있던 원주를 강원도에 복귀시켰고, 그후론 조선말기(1895)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다가 그 동안의 변화가 있었다면



원양도 · 강양도 · 강춘도 · 원춘도 등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속초의 인구는 영조 36년(1760)에는 1,265명.
1870년경에 발행되었다고 생각되는 「관동읍지」에는 1,296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속초는 강원도 양양도호부 도문면(道門面)과 소천면(所川面)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방 교육기관으로는 「향교」를 들을 수 있는데, 향교는 관립학교로서 모든 고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속초가 속하였던 양양·간성에 모두 향교가 있었고 지금도 보존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로는 양양읍 조산리에 고려말의 무장 조인벽(趙仁璧)을 모시는 동명서원이 있었으며

속초 대포동 내물치에는 유희일을 추모하고 제사지내던 「향현사」라는 향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많은 서당이 있었고, 1911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의하면 강원도에 1405개의 서당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속초에는 많은 서당이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네가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게 대체
무슨고?

제가 그만
스님의 그림자를
밟았지 뭉니까요

조선 초기의 군사조직은 육군경비전투기지 격인 관방과 해군경비기지 격인 해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양의 관방으로는 양양읍성, 권금성, 토왕성, 대포진성(양양읍조산리) 등이 있었고



해방으로는 쌍성호 (청초호), 대포(양양읍 조산리) 등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전쟁이 없었는데



다만 임진왜란(1592~1597) 때 제 4진으로 상륙한 모리요시나리 군이 안변에서 영동지역으로 남하하였고,



이에 사명대사가 고성 건봉사에서 승병들을 모아 전투에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양양 「향토지」에 부사 김수연이 9월에 부임하여 방어하지 못해 10월에 면직당하고, 임시 수령 정은신이 11월에 부임하였다가 12월에 해임되고, 12월에 부사 황규가 부임하는 등 그 피해가 5개월에 달하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밖에도 진상하는 관물의 수송까지도 담당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전국에 500여개의 역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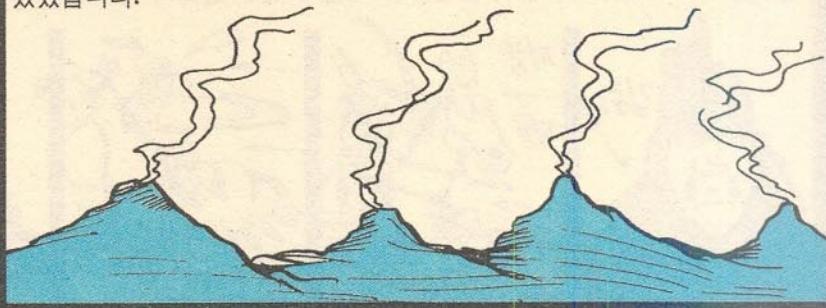
양양에는 상운, 연창, 인구, 강선, 오색 등에 역이 있었고, 봉수는 변경의 긴급한 사태를 중앙에 알리는 군사상의 이유로 설치되었는데, 대략 수십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서로 잘 보이는 산꼭대기에 봉화대를 설치해놓고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를 피워
신호하였습니다.



속초 대포동 외옹치에도 덕산봉수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남으로는 수산, 초진산, 북으로는 삼포리, 죽도, 거진 반암리의 정양산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동법이 실시되기 전에는 각 군현별로 공납이라고 하여 특산물을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특산물은 전곡과는 달리 수확량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농촌경제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모시, 철, 죽간(竹簡, 글씨를 쓰던 대 조각), 해송자, 오미자, 자초(화상, 동상 등에 바르던 약초), 인삼, 지황(한방약재), 복령(버섯종류 한약재), 꿀, 백화사(뱀), 김, 콩, 전복, 흥합, 문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숭어, 해삼, 송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과 의병항전

동학은 1860년경 철종 때 경주 사람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이돈화가 지은 「천도교 창건사」에 의하면 당시 속초 인근 양양, 간성에도 이미 동학이 전래되어 있었는데, 한말 민족 운동의 두 흐름은 의병항쟁과 애국계몽 운동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일제시대의 속초



일제는 이어서 1910년에는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빼았았고 주권을 빼앗긴 뒤 우리 민족은 국내외에서 활발한 항일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민족의 활동이 1919년 3·1운동이라는 전 민족적 봉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족의 활동에 맥을 같이하여 활발한 주권회복을 벌였습니다.



우리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통치의 중추기관으로 서울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입법, 사법, 행정 및 군대 통수권 등을 가진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했습니다.



일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행정제도를 정비하여 1914년 전국을 13도로 나누고, 그 밑에 부·군·도(島)를 두었으며 전국의 군을 220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때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이 도천면으로 합쳐져 오늘날 속초시의 토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25년경 도천면은 장항리,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 내물치리, 대포리, 외옹치리, 부월리, 논산리, 노리, 속초리의 11개리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대포리는 도천면의 소재지였고, 근대화에 따라 외지와의 교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 고장의 문호 역할을 담당한 상당히 큰 항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후기에 와서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면서 청초호 북쪽에 인접한 속초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937년 7월 1일에는 면의 소재지가 대포리에서 속초리로 옮겨지고 면의 명칭도 도천면에서 속초면으로 바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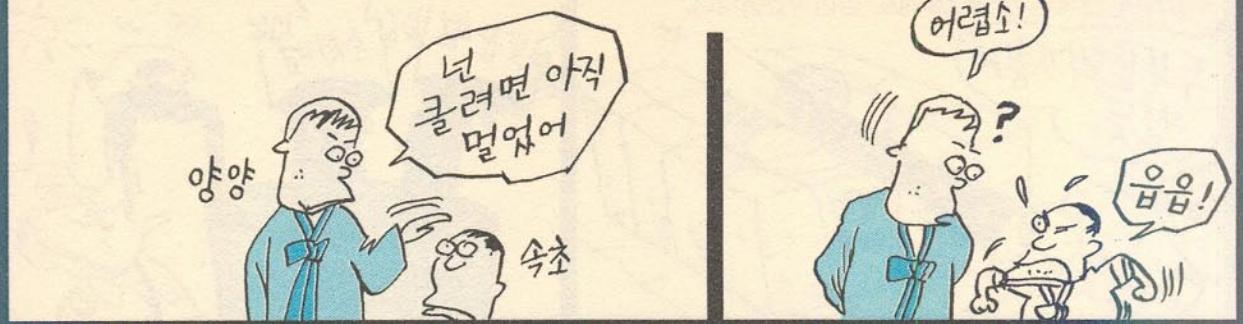
이 때부터 속초는 면 이름이자 동리 이름이 된것이죠



이어서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은 속초읍으로 승격되었고, 동시에 속초는 1구에서 4구로 나뉘어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14개 리가 되었지만, 행정상으로는 17개 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양양군 소재지인 양양은 아직 면이었으나 속초는 이미 읍이 되면서 커지기 시작하고 6.25동란 후 피난민들이 모여들어 정착하였습니다.



성난 파도처럼...



만세운동 거사계획은 보수적인 유학계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유학계의 거사계획은 도문동 중도문리 출신의 이석범에 의해서 추진되었는데, 이석범은 보수 유학계의 지도자로 당시 중도문리 쌍천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를 양성하였습니다.



또 한편의 계획은 양양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는데,

개성 조영순전도사의 딸 조화벽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와



양양 감리교회 청년지도자 김필선, 김주호, 등에게 인계하여 거사준비를 하던 중 유림 세력과 연결되어 추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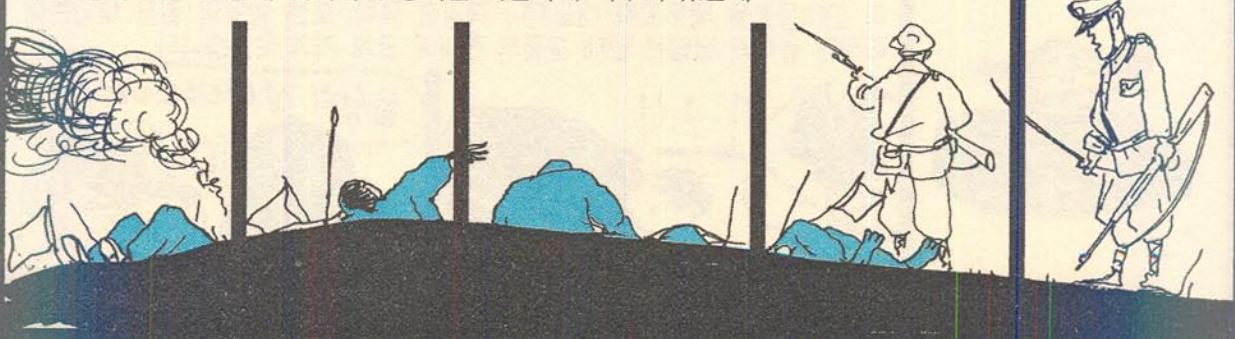
이석범의 지휘와 양양 감리교회의 계획이 합쳐져서, 4월 4일 장날을 맞아해 양양면 · 서면 · 손양면민 등 4천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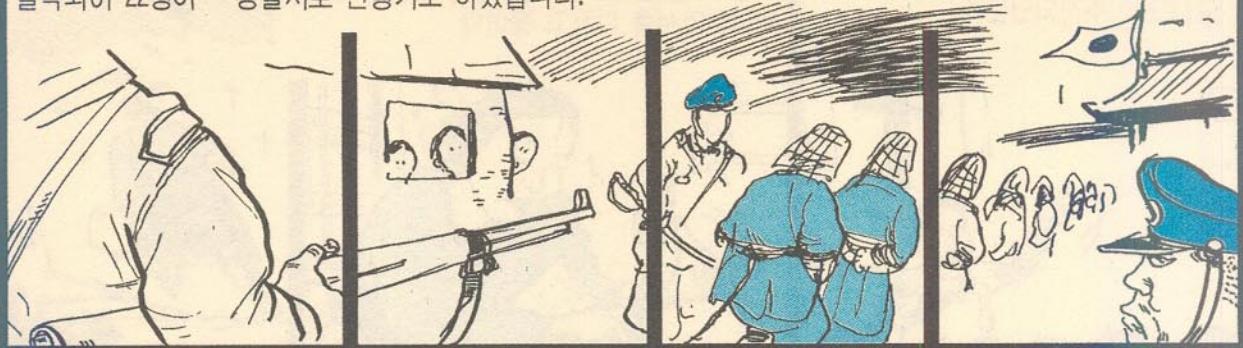
이 때 손양면 가평리의 함홍기는 경찰서장에게 항의하다가 피살되고, 경찰의 야간사격으로 손양면 간리의 권병연과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가 피살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세운동은 6일간에 걸쳐 주민 6,000명이 참가하여 전개한 전 군민적인 만세운동으로, 전국에서도 그 예가 드물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장시간 치열하게 이루어 졌는데



만세운동으로 12명의 사망자와 70여명 이상의 부상자가 났으며, 임천리에서 추진되던 준비작업의 일부가 발각되어 22명이 경찰서로 연행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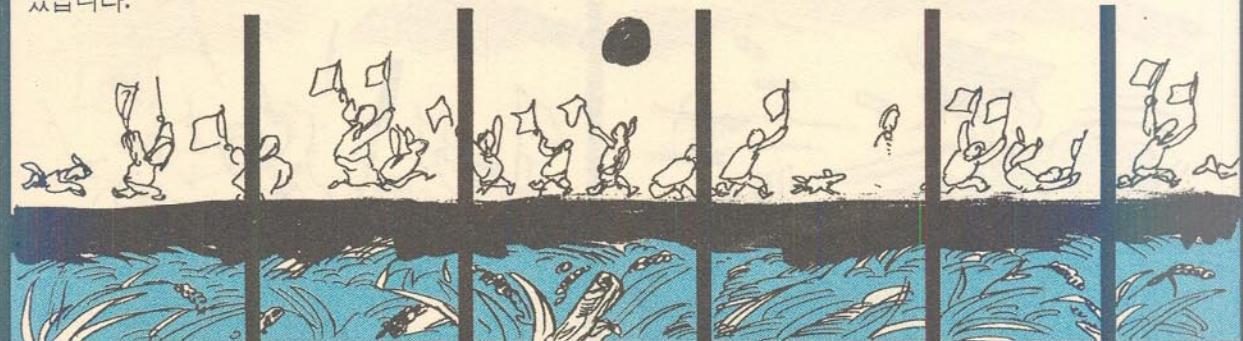


이러한 양양 지역의 만세운동은 독자적으로 계획되어 상반된 이해를 갖는 보수세력과 개화세력의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을 합쳤기 때문에 대규모로 발전 할 수 있었습니다.

타 지역의 운동과 다른 점이 있다면 초기의 폭력적이지 않던 만세운동이 일제 군인과 경찰의 무차별 진압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무력 시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농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후 항일 독립운동으로 계속 연결되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근대화를 위한 움직임은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고, 3·1운동에 참가했던 보통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근대문물을 배우고자 대도시나 국외로 유학, 또는 망명의 길을 떠났는데, 이러한 유학과 망명은 근대 문물의 전파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일제의 경제 기본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농토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저희들의 식량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양곡만을 약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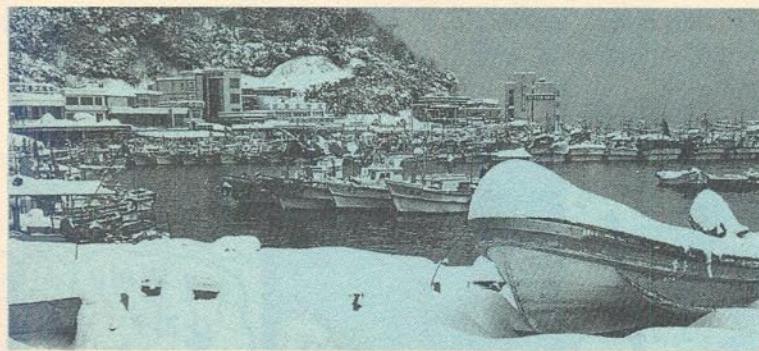
토지조사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토지를 빼앗아 갔는데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일본사람의 손에 넘어가 일본인 대지주를 양산시켰고, 1920년대에 시작된 산미증식 계획은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제 시대의 속초 지역민의 생활도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속초를 포함한 양양지역은 타 지역에 비교해 보면 비교적 나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층이 상당히 많았는데, 소작농의 75%가 춘궁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양양지방의 조개, 미천, 갈천, 서림 등 화전민들은 풀뿌리 나무껍질로 연명한다는 당시 신문보도가 있는가 하면, 소작농의 66%가 빚을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천면의 중심지였던 대포항 모습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민족은 일제의 36년간 압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학정속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하였으므로, 해방된 민족을 조직하고 이끌만한 조직체가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대립으로 혼란을 빚고 있을 때



미국, 소련 양국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양분하여 점령하였습니다. 38선 이북에 위치한 속초지역은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한반도를 양분한 미·소 양군은 점령지역에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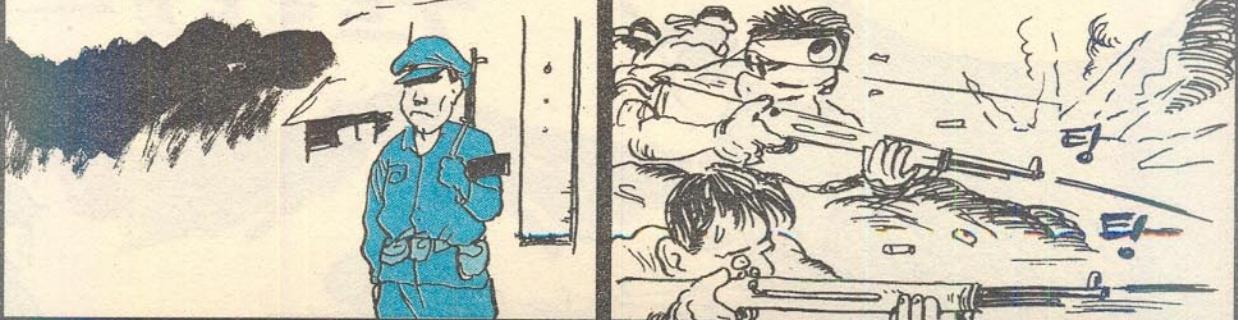
분단



1947년 2월에 조직된 이른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그것, 이들은 토지개혁을 위시하여 여러가지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과정에서 속초에서는 반공인사들을 중심으로 반공투쟁을 위한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공산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장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속초 애국동지회 사건과, 호림 유격대의 설악산 핏골전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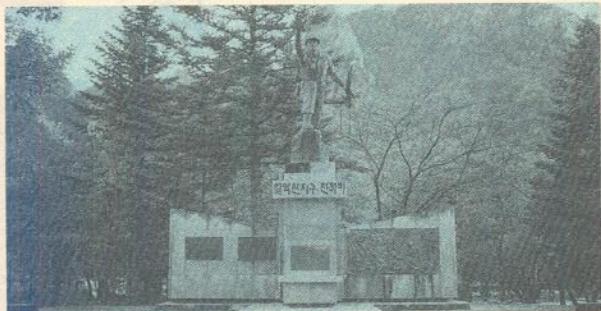


「속초애국동지회」는 속초에 거주하던 고재덕을 중심으로 10명이 조직한 반공 애국단체였습니다.

이들은 소련 점령군의 약탈과 북한 공산당의 횡포에 못 이겨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자고 모인 단체였지만 1946년 거사를 모의하다 탄로나 모두 체포되어었으나 1946년 6월 19일 풀려났습니다.



그밖에도 「호림유격대」의 멸공작전과 반공청년들의 전투가 이지역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 설악산지구전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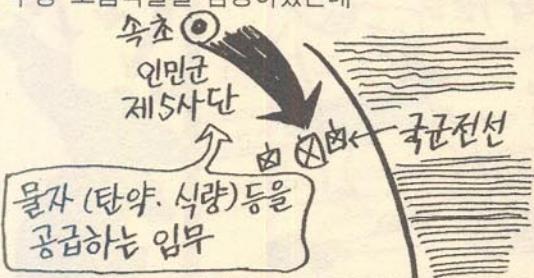
과

6·25동란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불의의 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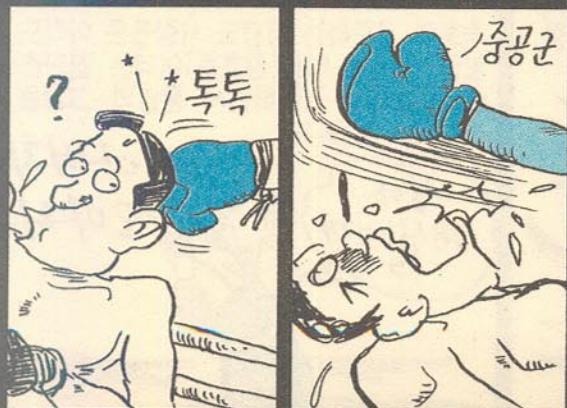
속초는 동해안의 국군 전선 돌파를 명령받은 인민군 제5사단의 진격코스가 되었고, 전쟁초기에는 접전지역이 아닌 인민군의 후방 보급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병력과 장비가 모자라는 국군은 부득이 낙동강을 저항선으로 하는 지점까지 후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엔이 한국전 참전을 결의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속초의 수복은 한국군 제1군단(제3사단과 수도사단으로 구성)의 진격에 의해 이뤄졌는데, 제3사단은 1950년 10월 1일 양양 38선에서 북한 공산군 제 5사단의 저항을 제압하고 북한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국군은 민족의 분단선을 무너뜨린 이 날을 기념하여 「국군의 날」로 정하게 되었고 동해와 태백산맥은 조국통일의 의지를 굳게 다지는 첫 진격의 장으로 전사에 길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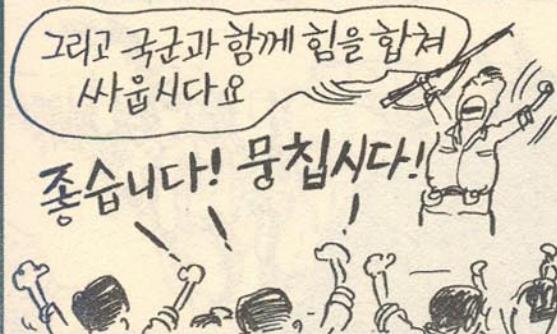
양양군민은 1950년 10월 2일을 기하여 양양군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도 자치위원회를 결성하여 행정을 실시하였고

양양자치위원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땅이 되었으니
새롭게 단장합시다!



치안확보를 위해 읍면에 치안대를 설치였는데, 치안대는 국군과 합동으로 패하여 도망 가는 북한 공산군을 논산리(지금의 조양동)앞뜰에서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중공군 개입



국토의 분단은 민족의 대이동을 가져왔습니다. 1946년부터 1·4후퇴까지의 기간 중 북한지역에서 자유를 찾아 남하한 월남민은 약 5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멀리 가지 말고

고향과 가까우
이곳에
자립평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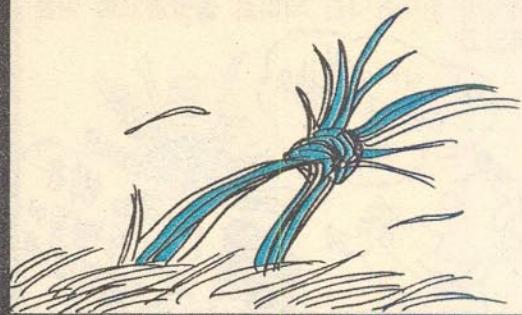
그러길 50여년

속초에 거주하는 함경도 사람들은 아직도
일명 아바이 마을(청호동)이라는 집단촌
을 형성하여 거주하면서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초라는 명칭에 대하여 현재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오래 된 기록은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로 속초는 조선시대 양양도호부 소천면(所川面) 속초리(束草里)라는 한 동리였습니다.

속초 지명에 관해서는 뮤을 속(束) 풀 초(草)라고 써서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는데,



영금정 옆에 솔산이 있을 때 바다에서 포구를 들여다보면 그 솔산이 소나무와 풀을 묶어서 세워 놓은 것 같은 형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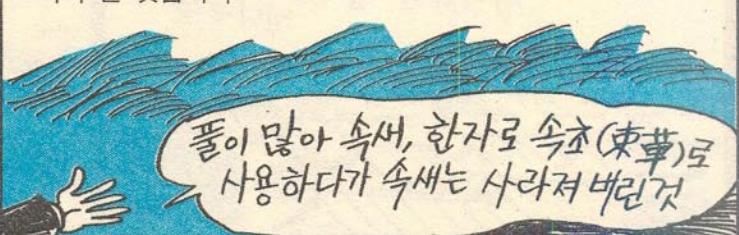
풍수지리적으로는 속초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소가 누워서 풀을 먹고 있는 형국이므로, 누워서는 맘대로 풀을 뜯지 못하므로 풀을 묶어서 소가 먹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속초라는 한자 지명의 뜻에 '풀을 묶은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모두 전설적인 얘기로 신빙성이 희박합니다.



「한국지명총람」에 보면 속초리는 속새, 속새울이라고 했는데 “속새가 많은 데서 유래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다른 지역의 지명도 속새라는 풀이 많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 많은 것을 보아 속초도 속새의 한자 표기로 속초(束草), 속새를 함께 사용하다가 속초라는 지명만 남고 속새는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각동의 지명 유래를 알아 보기로 할까요?



영랑동(永郎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속초리 1구를 영랑호에 가까이에 있었다고 하여 영랑동 이라 하였고



동명동(東明洞)은 1966년 동(洞)제 실시 때, 속초리 2구를 동해 바닷가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밝아온다는 의미로 동명동으로 이름 하였고



중앙동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속초리 3구를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동이라 하였고



중앙동, 교동은 타도에서도 많던 걸요



현재 중앙시장이 들어서 있는 골짜기 옛이름이 용수골이라 불리어 졌는데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소(沼) 가 있어서 '용소골'이라 불리던 것이 '용수골'로 변화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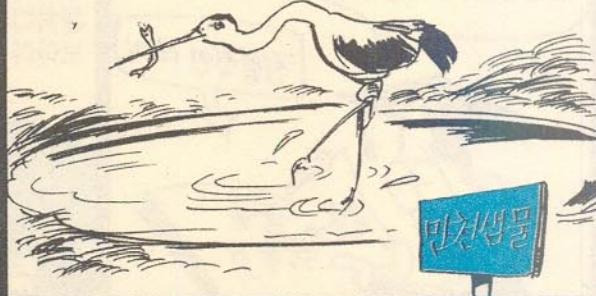
교동(校洞), 중앙동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속초리 6구가 청학동과 교동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보통 향교가 있었던 마을을 교동이라고 하나 속초에는 향교가 없었으므로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 속초중학교가 위치했었기 때문에 교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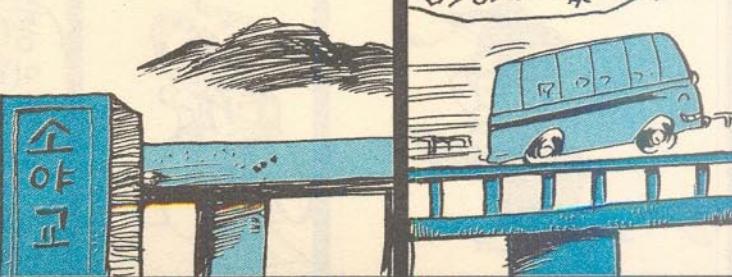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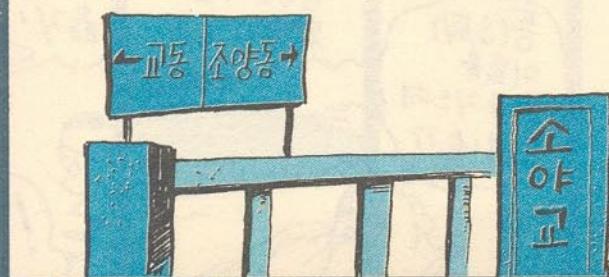
만천동(萬泉洞, 萬千洞)은 교동 성당 부근을 일컬던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명의 유래는 앞으로 집의 숫자가 만천호가 된다는 뜻으로 지었다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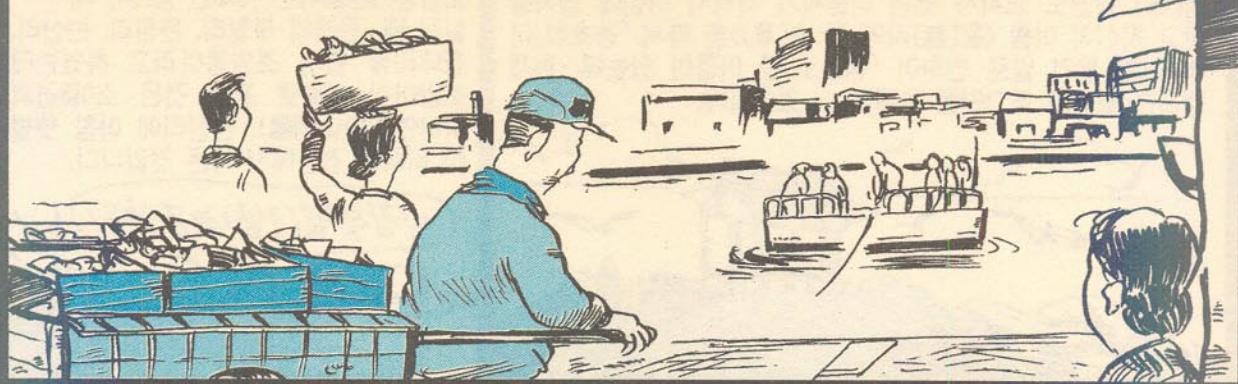


만석꾼이 살았다거나, 만천이란 아주 좋은 샘물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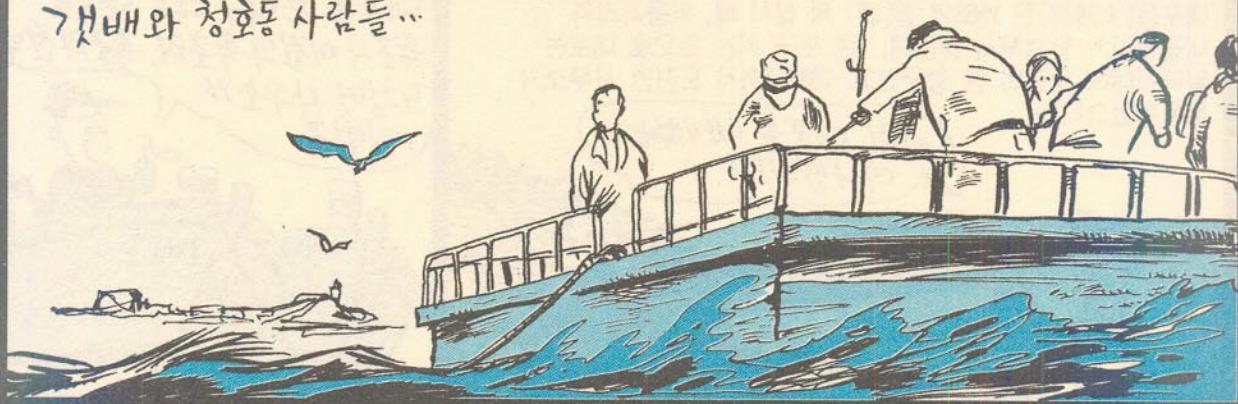


그리고 청초천 하류에 놓여 교동과 조양동을 연결하는 두개로 된 다리가 있는데 두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쌍다리라 부르나 공식명칭은 「소야교」라 해야 옳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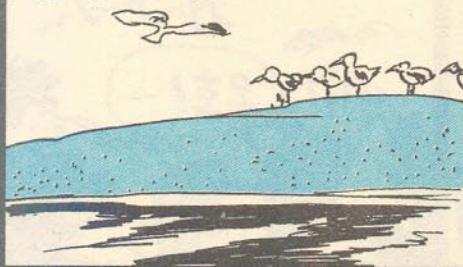




갯배와 청호동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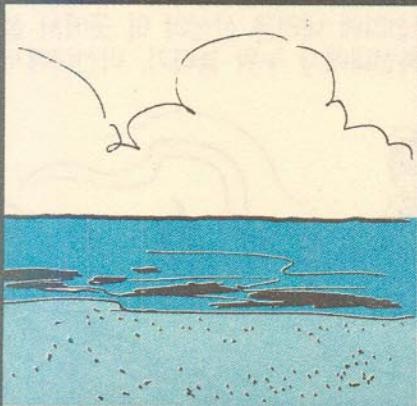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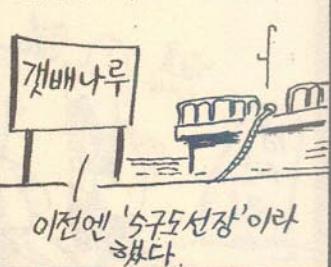
청호동(青湖洞)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수복 이후 피난민들의 거주로 마을이 형성되어 속초리 5구가 되었다가 청호동으로 바뀌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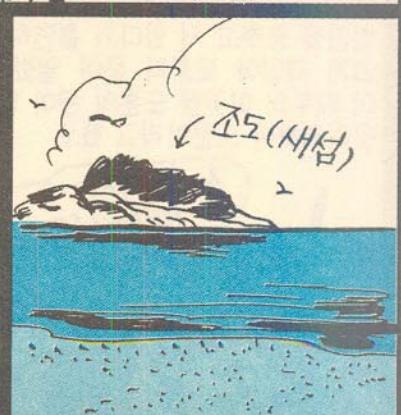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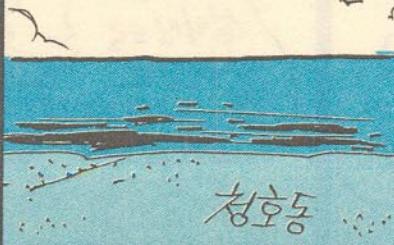
‘청호’라는 이름은 청초호에서 온 것이 틀림없는데, 청호동에는 함경도에서 내려 온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으로 함경도 사투리 ‘아바이’를 사용하여 ‘아바이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또, 중앙동과 청호동을 연결하는 갯배를 타는곳을 ‘갯배나루’라 했는데, 이전에는 ‘수구도선장’이라 했습니다.



청호동 백사장에서 보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무인도 섬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새섬’이라고도 합니다.



전(前) 강원도 도지사 였던 이용씨가 재직시 이섬에 정자를 짓고 자신의 이름 <용(龍)자와 풀 초(草)>를 따서 「용초정」이라 이름 붙인 일로 인하여 「용초도」란 이름이 있는데, 현재 정자는 헐리고 조그만한 등대만 서 있습니다.



대포동(大浦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외옹치리와 내물치리가 합쳐져서 됐는데, '큰 포구'라는 뜻으로 대포는 일제시대에 상당히 큰 항구였고, 1937년까지 도천면 사무소가 위치했었습니다.

이런 대포를 얘기하는게 아니였어요?



도문동(道門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상도문리, 중도문리, 하도문리가 합쳐져서 도문동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는 도문면이라 하였다. 도문이라는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신라때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서 신선의 안내를 받아 설악산 쪽으로 가는데



법장을 멈추고 서 있다가 훌연히 크게 깨달아 도통의 문이 열렸으므로, 이 때부터 이곳을 도통의 문이 열린 곳이라하여 도문이라고 했고



조양동(朝陽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종래의 부월리, 온정리, 논산리, 청대리를 합쳐 조양동이라고 하였는데 조양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소야8경의 하나인 (論山朝陽), 논산리에 아침 햇볕이 비치는 경관에서 따온 것입니다.



대포는 '큰항구'라는 뜻으로 속초시 이전의 속초리, 속초리전의 도천면 사무소가 있었죠



이곳에 이르자 갑자기 숲속에서 맑고 우아한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무상무아의 불법을 깨닫는 듯 하여,



또 하나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내려온 신선이 이 곳에서 설악산으로 가는 길을 물어, 와선대에서 누워 놀다가, 비선대에서 하늘로 날아 올라 갔는데,



이 곳에서 길을 물었으므로 이곳을 도문(道問)이라고 하던 것이 도문(道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수도객들이 도를 닦기 위해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하여 도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도객 첫 관문



설악동(雪岳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종래의 장항리를 설악동으로 개칭하였고, 198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종래의 이름 장항리는 노루목 고개의 노루목을 한자로 표기한 장항에서 온 것으로, 노루목은 고개가 보통 목처럼 길게 늘어졌으므로 일반적으로 순수 우리말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화되었고 이것을 한자어로 장항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노학동(蘆鶴洞)은 1966년 동(洞) 제 실시 때, 종래의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서 노학동이라고 이름하였는데, 「노학」이란 이름은 노리(蘆里)의 '노' 자와 척산리 학사평(鶴沙坪)의 '학' 자를 딴 것입니다.



학사평(鶴沙坪)의 원래 이름은 딱사발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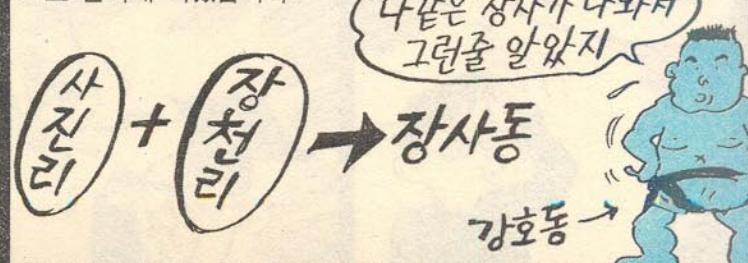
후에 학이 내려와 앉는 벌판이라고 하여



'딱' 자 대신 '학' 자를 써서 학사평으로 개명되었다고 하는데, 딱사발은 농사가 잘 안되는 딱한 벌판이라는 뜻으로 요즘은 발음상 '딱사발'이라고 합니다.



장사동(章沙洞)은 고성군 토성면에 속했던 지역이나 속초의 발전에 따라 1973년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글자를 따 장사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닌 바다였는데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곳은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불리어졌고,



한자어로는 사야지(沙也只),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부르다가 일제시대부터 줄어서 사진리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또 영랑호 서쪽에 장천리(章川里)라는 마을이 있는데, 장천의 '노루장'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나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에서 시작되어 흘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하다가 장천(章川)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가 사는 청학동은 이렇다할 뜻이 빠졌네요



혹시~ 푸른학이 내려와 앉았던가 하는 전설이 있었던게 아닐까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 문화를 알고자하는 사람들 사이에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지역의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향토의 문화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조상의 얼과 슬기를 깨닫게 되기도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문화를 가꾸는 마음으로까지 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 관한 것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문화재에는 크게 유적과 유물로 나뉘게 되는데, 과거 사람이나 사람집단의 행동이 행해진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을 유적이라고하고



유물은 과거의 사람이나 사람집단의 행동 결과로서 남긴 물건을 말합니다.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기원전(B.C) 7~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시대 집자리 7기와 고인돌 2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빗살무늬, 민무늬토기 등 160여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교체되는 시기의 유물로 인정되어 1992년 10월 6일 사적지 제 3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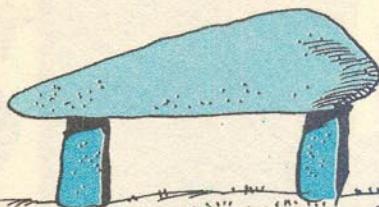
청동기 시대의 집자는 하천이나 평야에서 가까운 낮은 야산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조양동 선사 유적지의 집자리 7가 역시 청초호 주변 평야지대의 낮은 야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검을 매장하는 위치와 받침돌이 있고 없고에 따라 크게 북방식, 남방식, 개석식 등으로 나누는데 조양동 선사유적지의 고인돌은 북방식 고인돌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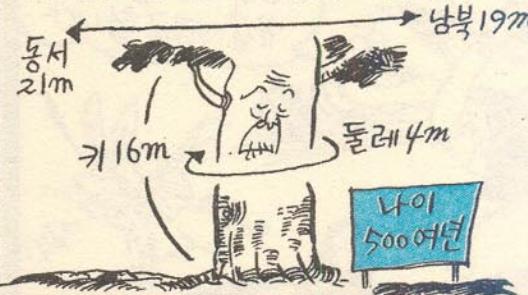


그밖의 토기, 석기, 청동기의 유물들은 속초문화회관에 위치한 「속초시 향토사료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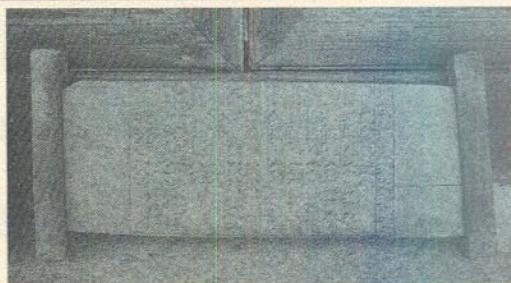


◀설악동 소나무
(천연기념물 제351호)

설악동 소나무는 나무나이가 500여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고, 나무의 높이는 약 16m, 가슴높이의 줄기 둘레는 4m, 가지펴짐은 동서로 21m, 남북19m인데



옛날에 “나무밑에 돌을 쌓으면 장수한다”는 설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돌을 쌓아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신흥사 경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5호)

경판이란? 부처님께서 따르는 제자와 중생을 상대로 설파하신 내용을 기록한 '경'을 담아 놓은 광주리란 뜻인데,



경판은 처음에는 종이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므로 대나무, 잎사귀, 나무껍질 등 여러가지 재료를 사용 하였으나 오랫동안 보존 할 수 없었으므로 뒤에는 목판에 조각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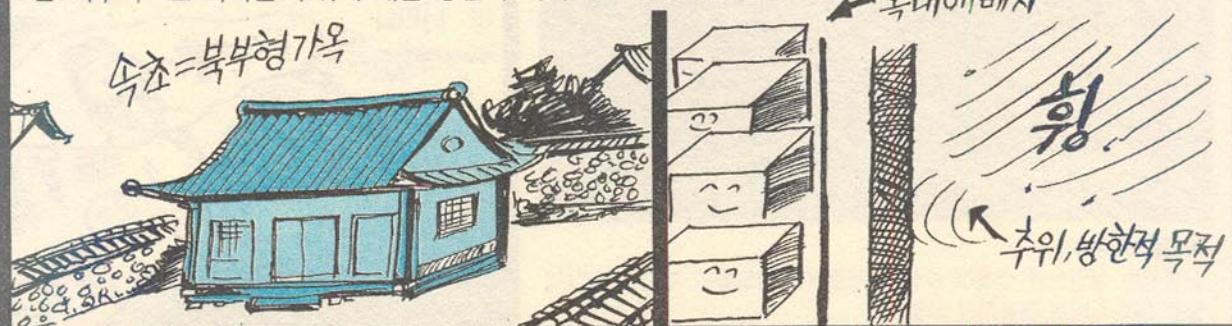


신흥사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은 불경을 비롯하여 불교 관계 문헌을 새긴 목판으로 대형과 소형 2가지로 모두 280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근수 가옥 - 속초시 도문동 1번 1504번지에 위치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 64호)

우리나라의 민가는 그 지역의 기후조건, 재료 등에 영향을 받아 각기 지방에 따라 독특한 형식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속초 지역의 가옥은 북부형 가옥으로 모든 공간을 옥내에 집중 배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후적으로 혹독한 추위에 대한 방한적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김종우 가옥 - 속초시 도문동 1186번지에 위치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 85호)



▲권금성 - 속초시 설악동 170
적군의 침입이나 대상을 지키기 위해 도로 쌓아 올린 성.
동고 침입시 권씨, 김씨 등 두 장군이 백성들을 이 성에 피난시켜
난을 피하게 하였다고 하여 「권금성」이라 부른다고 전해집니다.



▲학무정(속초팔경) - 속초시 설악동 상도문 1리

학무정은 이 마을 출신 오윤환이 1934년 친척들과 제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서 「육모정」이라고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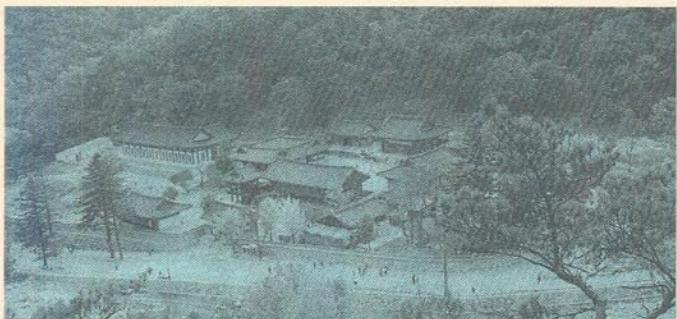
이 곳(학무정)에서는 선비들이 글과 시를 짓고 읊었으며, 강론도 하고 교육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산수가 곱고 아름다운 장소를 택합니다: 따라서 산골짜기의 시냇물가의 높은 장소에 자리잡는데, 학무정도 그런 경우입니다.



또, 영랑호 동남쪽 골짜기에 위치한 사찰로 「보광사」가 있는데 1937년 정화담 스님이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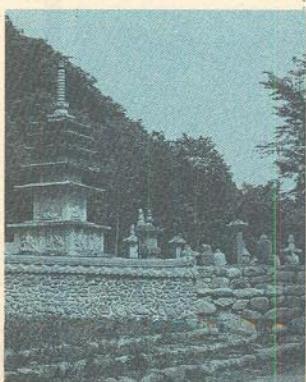
▲신흥사(新興寺) -

신흥사는 설악산과 더불어 수많은 관광객과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동지방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절 이름을 「신흥사」라 한 것은 영서, 혜원, 연옥 스님이 절의 재건에 매진하고 있을 때 3스님 모두의 꿈에 백발의 신인(神人)이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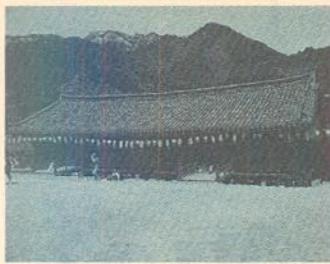


현재의 신흥사 터를 영원토록 3재(災)가 미치지 않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점지해 준 데서 붙여진 것입니다.



◀신흥사 부도군(新興寺 浮屠群) (강원도 문화재 자료 제115호)

부도(浮屠)란? 승려의 사리탑을 일컫는 것으로 수행이 높은 승려에게 불타(佛陀)와 같은 예우를 해 주게 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부도를 세우기 시작한 때는 삼국시대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보자루(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04호)

영조 46년(1770)년에 세워진 것으로 누각(樓閣)식으로 아래층 가운데 칸은 극락보전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위층은 다락으로되어 있으며, 공간의 높이는 사천왕문 보다는 높게, 보전보다는 낮게 구성되어 있다.

▶팔작지붕



◀맞배지붕

<지붕 건축양식>



▲극락보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4호)

극락보전 앞의 계단

아미타불 (阿彌陀佛)을 모신 신흥사의 본전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겹처마 팔작기와 지붕의 다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명부전(冥付殿)

저승세계를 상징하는 전각



▲삼성각(三聖閣)

불법이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마지막 시기에 중생에게 복을 주고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하여 전각을 세워 봉안해 놓은 것이다.



◀황성사지 삼총석탑 (보물 제 4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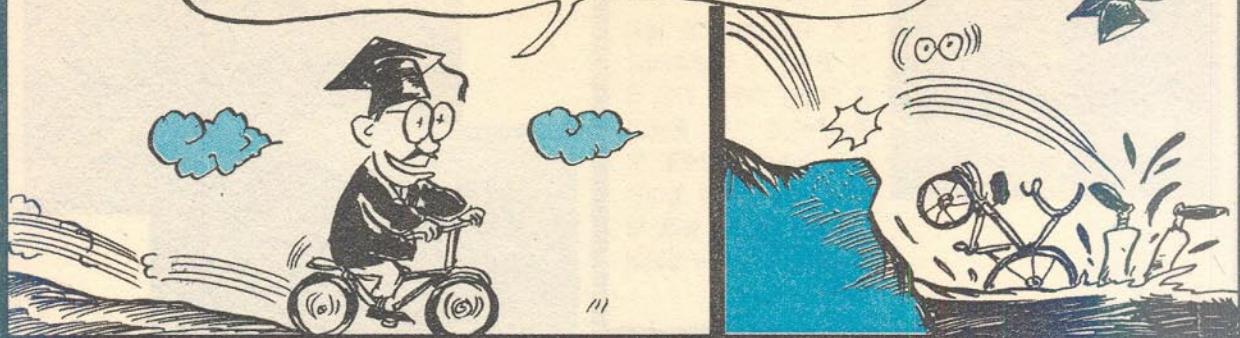
자장율사가 건립했다는 이 석탑은 현재 켄싱턴호텔 앞 갓길에 위치하며 1966년 8월 25일 보물 제 443호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이다.



◀노학동 3층석탑 (강원도 문화재 자료 127호)

설악산 목우재 휴게소 앞 도로 건너편 골짜기의 등산로를 따라 개울 오른쪽 약 30분 정도 산을 오르면 속칭 「무당골」이라 불리는 200평 정도의 석탑 1기가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석탑 1기와 석축 및 여기저기에서 기와 조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사지(寺址/절터)임을 알려주고 있고,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이제 우리 고장의 「세시풍속」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세시풍속」이란 일상 생활에 있어서 해마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관습적으로 되풀이되는 생활행위라 할 수 있는데 속초의 세시풍속은 산간과 어촌, 자연 부락 간에 차이가 나는 점이 있으며 지역 특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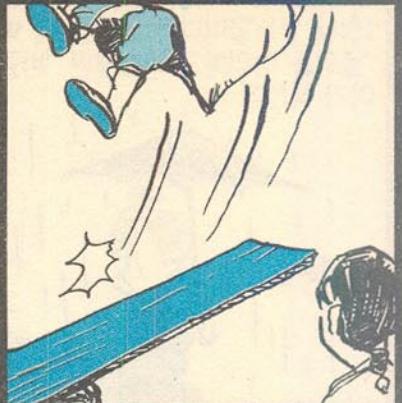


1월의 세시풍속으로는 1월 1일 '설날'이 있습니다. 그냥 '설'이라 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 날에는 조상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떡국차례'를 지낸다고 하는데 차례가 끝난 후에 어른에게 세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정초의 십이지일, 입춘날, 까치 보름날, 대보름날 행사가 있고 이 가운데서 대보름날에 하는 행사에는 주로 약밥·오곡밥먹기, 더위팔기, 귀밝이 술, 김치·찬물 안먹기, 새소리 듣기, 달 점치기, 개보름쇠기, 나무 시집보내기, 연 귀양보내기, 봉숭아밥싸기, 햇불 싸움, 엄나무와 체바퀴달기, 용왕제·배서낭제, 귀신날 등이 있습니다.





▲대보름 행사하는 모습

2월에는 「영등할머니제사」라고 하는 제례가 있는데, 2월 1일 새벽에 주부가 영등할머니를 위하여 장독에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린내 나지 않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을 놓고 나무와 떡을 해 놓고 집안의 평안을 뵙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느 집안에서는 무에 명태를 넣은 '무악찌기'라는 음식을 만들어 식구 수대로 수저를 꽂아 빌기도하고 떡시루에 수저를 꽂기도 합니다.



비는 장소는 부엌이나 장독대, 집의 뒷쪽에서 지내기도하는데



영등할머니는 2월 1일날 하늘에서 내려 왔다가 15일날 다시 올라가며 20일날 수부가 마지막으로 올라감으로 이때도 상을 차립니다.



1일날 영등할머니가 내려올 때 비가오면
‘물영등’이라고 바람불면 ‘바람영등’
이라 하는데



물영등이 되어야 풍년이 되고 바닷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영등할머니는 여신이므로 성격이 까다롭다고 하며
영등날 며느리와 내려올 때는 비를 내려서
며느리 옷이 젖게하고



딸과 함께 올 때는 바람을 불게하여
딸의 치마가 잘 날려 보기 좋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현실에 빗댄 이야기인데 영등
제사를 지내려 쌀 나락을 말리는데 새가 이를 먹고 그 자리에
서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만큼 영등할머니를
질 모십니다.



(참새도 얼씬 못하게
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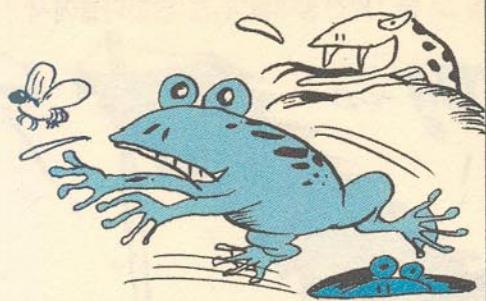
영등할머니 부디
잘되게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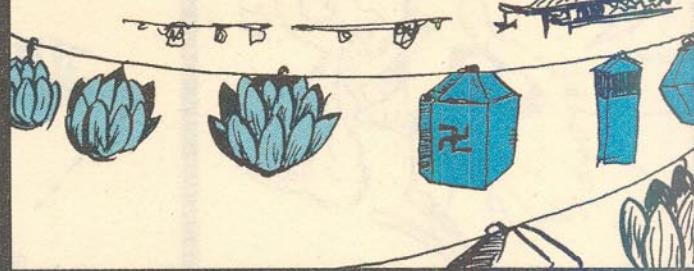
이러한 이야기는 자연에 순응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나타낸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좀생이 보기, 무(?) 물먹기,
머슴날, 한식날, 경칩 먹기 등이 있습니다.



3월 세시풍속으로는 삼짓날, 곡우 물먹기, 첫밭갈기,
풀각시놀이와 버들피리, 간장담그기,
4월에는 초파일, 갈깍기, 질어올리기



5월에는 단오날, 창포비녀와 머리감기, 약쑥캐기, 그네 뛰기
등이 있고



6월에는 6월 15일을 '유두날'

「유두(流頭)」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양기를 내포하므로 여기서 머리를
감게되면 한 여름 더위를 먹지 않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넌 안덥단
말이지?

유두날
머릴감았더니
별로...

속초에서는 약수터에 가서 속옷을 입고 물을 적시거나
울산바위 밑의 냉정터에 가서 물을 몸으로 받는데
이렇게 물맞이를 하면 병이 없어 진다고 생각했으며



어느정도껏 물맞일 해야지
도리어 병을 얻었네
얻었어

그외에도 쓰레셋이, 복날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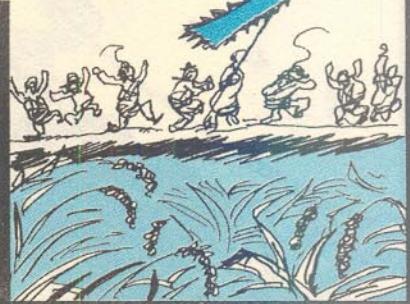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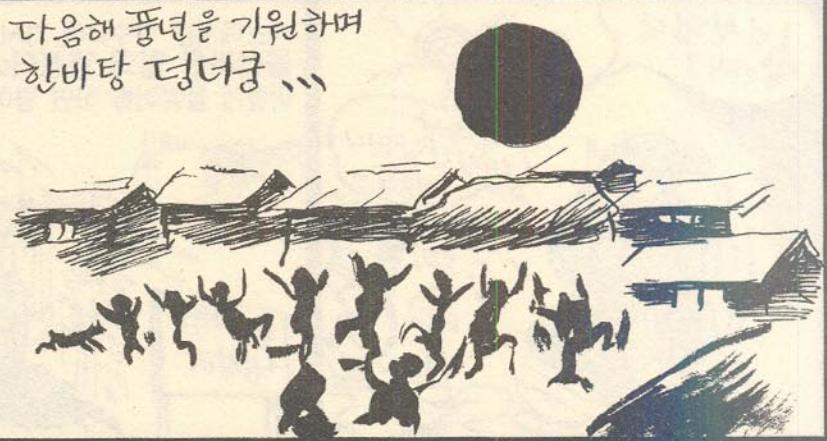
또, 7월의 세시풍속으로 칠석날, 백중날, 질 먹기 등이 있으며 8월의 세시풍속으로 벌초하기, 한가윗날, 배나무골 풍년 마당놀이 등이 있는데 그 중 「만천광대놀이」는 만천마을에서



한가위 때 일 년 동안 땀흘려 가꾸어 놓은 들판을 바라보며 풍년을 자축하는 한마당 놀이를 하는데 집집마다 돈이나 쌀을 내놓으며 이것으로 푸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남녀노소가 집집을 들러 농악에 맞춰 달맞이 놀이를 하면서 하루를 즐깁니다.



다음해 풍년을 기원하며
한바탕 뎅더쿵 ...



9월의 세시풍속으로는 중구일 그리고 10월의 대표적인 세시풍속으로는 상달(외옹치 서낭당에서는 10월 초순에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3년마다 굿을 하기도 한다)과 설악제가 있는데



「설악제」는 신라시대 이래 오랜 역사를 지닌 산악 제사로서 속초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향토축제로 정착되었습니다.

1966년 설악제 행사를 시작으로 속초의 향토축제로 자리잡았는데



처음에는 설악제등반대회시 간소하게 산행의 절차로 시작했던 것을 1976년 10월 7일 제9회 설악제 때 설악산신제를 독립하여 치렀습니다.

요즘에는 10월 1일로 정하여 격식에 맞는 산신제를 치르고 있는데 제단에서 설악산신의 강신을 빌고 잔을 올리고 절을하며 속초시의 무사안녕을 기원합니다.



이외에도 민속행사, 체육행사, 시민 운동회, 문화예술행사를 겸하고 있어 시민의 날 축제로 정착되었고, 속초시민의 정성을 모아서 민간주도행사로 치르고 있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처음에는 산신제 행사에서 출발한 설악제지만 산악인 뿐 아니라 어민들의 풍어를 빌고 산행의 안전과 지방민의 안녕을 비는 행사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0월에는 송개틀기, 김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어, 11월의 세시풍속으로는 동짓날, 용경등이 있는데 「용경」은 동짓달에 청초호가 얼었을 때 얼음이 언 것을 보고 새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합니다.

‘용경’(龍耕) 또는 ‘용갈이’라고도 하고 호수 밑의 용이 논두렁처럼 얼음을 갈아 놓은 것으로 판단하는데

얼음상태를 보니
내년 농사는
풍년이 되겠구랴

얼음을 남쪽으로 향해 갈아 놓거나
복판만 갈면 풍년

남쪽(풍년)

북으로 향해 엇갈거나 옆을 갈면 흉년이 되고, 좌우로 마구 갈면
평년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향해
엇갈게 용쓰면
흉년

파바바박

좌우로 용쓰면
평년작

속초의 전설에 의하면 영랑호는 암룡이 살고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용녀!
사랑해

저두요

청초호

청초호의 용이 얼음을 갈아 놓는 용경민속은 조선시대 읍지와 동국세시기 등에도 유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천동 나룻배 싸움 놀이는 이 전설을 근거로 하여 이뤄진 놀이인데 부월리, 조양동 주민들에 의하면 용이 밭을 가는 동지 때쯤이면 소들이 진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벌써 동지네!

벌떡!

벌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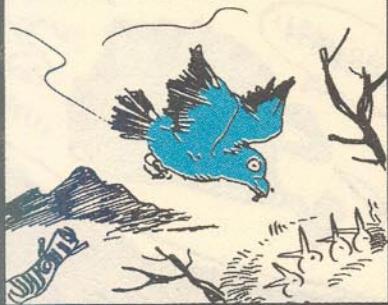
12월의 세시풍속으로는 설달, 수세, 윤달이 있습니다.

자~ 세시풍속은 이것으로 막을내리고

「속초시의 설화」편으로 막을 올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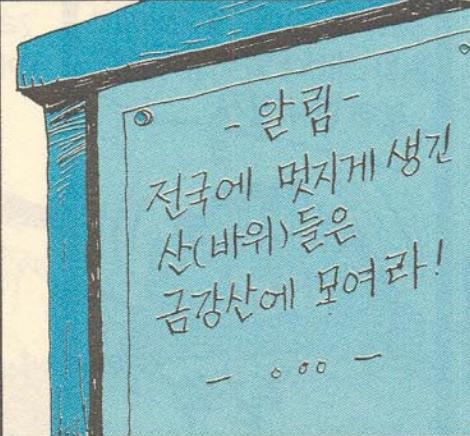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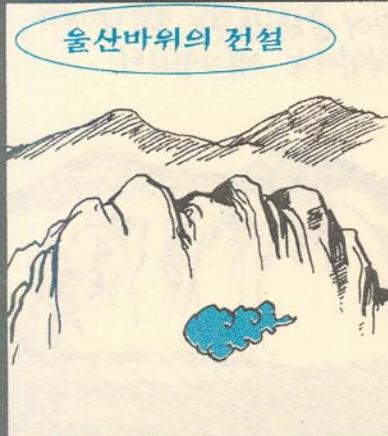


우리 고장에 여려가지 많은 이야기가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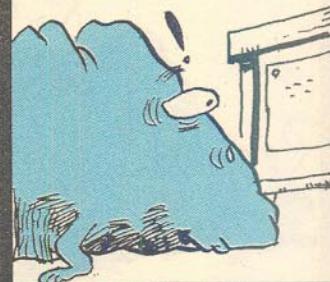


▲울산바위

울산바위의 전설



울산에 있던
울산바위가 그걸보곤



이만한 인물이면 누구에게도
안되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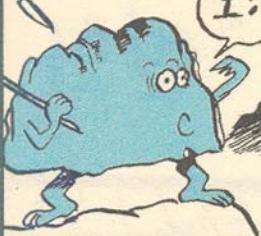
그리하여 금강산을 향해 떠났는데

어느덧 설악산에
이르렀고

오!~

어쭈! 설악산도 제법
멋진데

내정신 좀
봐!



덩치가 큰 울산바위는
금강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힘겹게 금강산에 도착해
보니..

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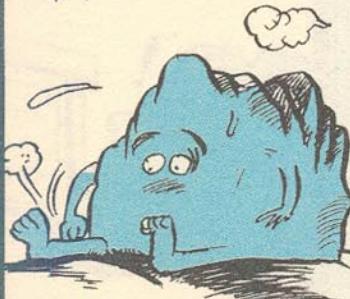


결국 포기하고 울산으로
내려 오게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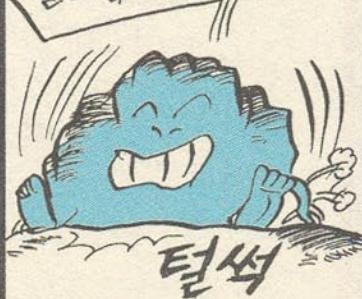
미워미워!



다리도 아프고
다시 울산까지 가려해도
엄두가 안나고...



에라! 경치 좋고 동해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는 설악산에
눌러 앉아 살자



그리하여 울산바위는 오늘 날까지
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권금성의 건설



▲권금성

권금성의 축조에 대한 기록은 없고

확실히 언제 어느연대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축성이 되었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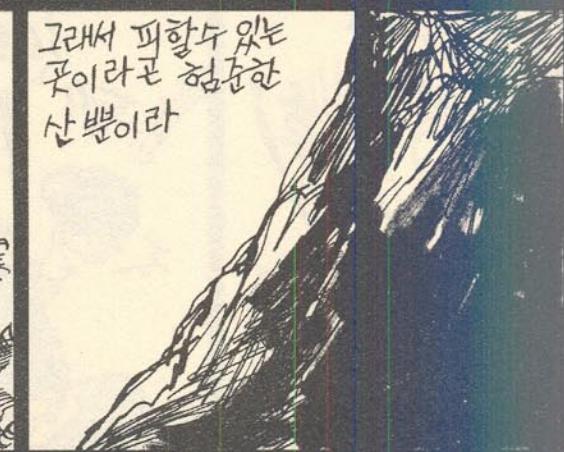
다만 전설만이 전해져 오는데!!!



힘이 강사래도 수많은 오랑캐들에겐 역부족...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곤 험준한 산 뿐이라



지금의 권금성으로 피신...

휴~ 놈들이 설마 여기까지
치기야 하겠소



웃겨~
거기로 올라간 거
다 알고 있다 해



곧 이리로도 쳐들어 올
기넬세

아~ 이 일을 어쩌다

할수 없죠! 여기서
성을 쌓고 싸우는 수
밖에...

알다시피 여기엔
성을 빙을 들도
없잖소

돌을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할수도 없고!!

내가 저밀 개울에 내려가
돌을 던질 테니 권장사가
받아 쌓으시오



자~
던집니다!

휙!

스트라위!
턱!



김장사 권장사가
교대로

돌을 집어 던져

휙!

성을 쌓게 됐다는
얘긴데..

지금 현재 성의
높이를 보면 높이가
약 4척

둘레가 천백열두자
정도 된답니다

권금성의 전설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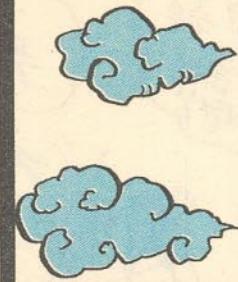


청초호 솟룡, 영랑호 암룡과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옛날에

청초호에 솟룡이 살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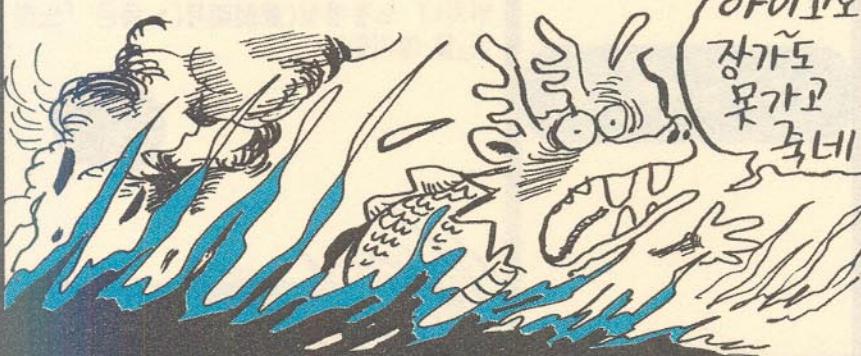
그들은 서로 사랑을
했드래요

지금이야 컴퓨터 이메일로
쉽게 사연을 주고 받지만

그땐 그런 것이 없어
서로 땅속으로 통한
물길을 따라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날 한 어부의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풀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인해 안타깝게 솟룡이 죽게되었지 뭡니까



그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습니다.



— 오뉴월에
한풀은 용

나도 아이고오~ 농사도 망하고 고기도
씨마르고 용이 크게 노했나보다

배
쫄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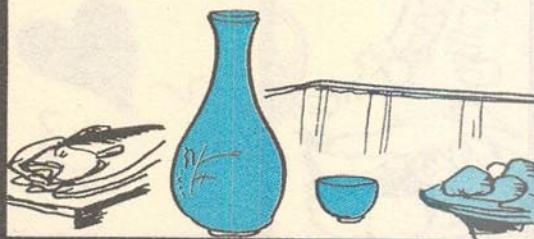
그 후에 어민들은 정월 대보름날을 기하여 무당을 청하고 정성껏 기우제와 용신제를 지내고 숫룡의 죽음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에 나룻배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뜻에서 한쌍의 나룻배로 힘을 겨루는 민속놀이를 거행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진 마을쪽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이긴 쪽 마을은 풍어와 대풍을 거둔다고 믿으며 나룻배를 타고 하루종일 가무도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만천동의 나룻배 싸움놀이는 이런 숫룡과 암룡의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지요



소야팔경(所野八景)

소야팔경은 주로 청초호를 중심으로 해서 갈대꽃이 많이 피고 그위에 달이 훤히 비치니 노동명월(蘆洞明月(노동은 「노학동」을 얘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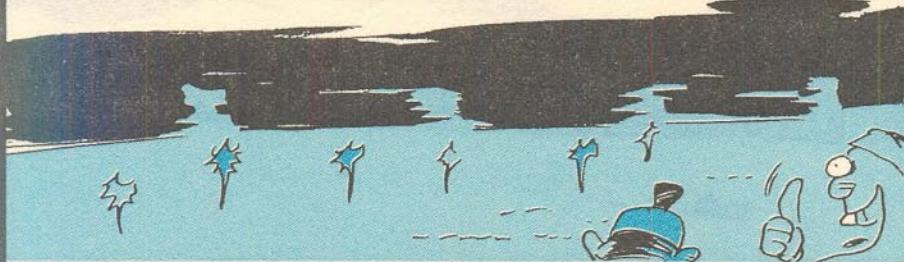
그리고 이동백설(梨洞白雪)이 있는데 이동(梨洞)이란 동네 뱃골이 있었는데 배나무 오얏나무가 많았답니다. 일제 때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나무가 베어져 버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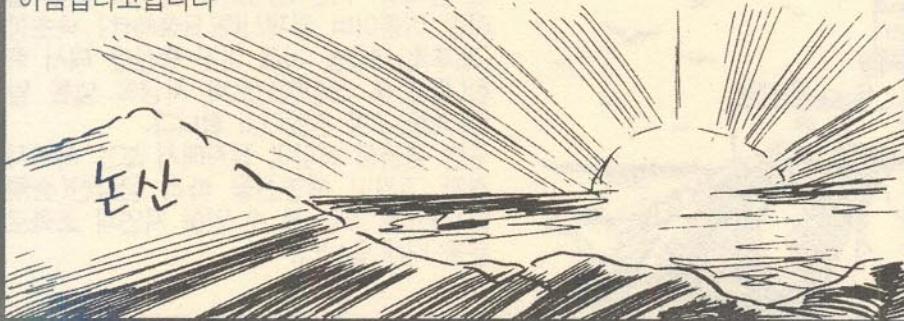
그 다음은 청대화병(靑岱畫屏), 청초호에서 청대산을 바라 보면 병풍그림같이 아름답다하여 「청대화병」이라 하였고



다음은 주교야화(舟橋夜火)인데 주교리에서 밤에 게잡는 불꽃이 기가 막히게 보기 좋았다고 합니다. 요즈음 같으면 오징어잡이 배 불빛을 보고 외지인들이 바다에 전기불이 있는 것으로 알고 탄성을 지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주교(舟橋)는 옛날의 부월리, 배다리 동네라고 불렀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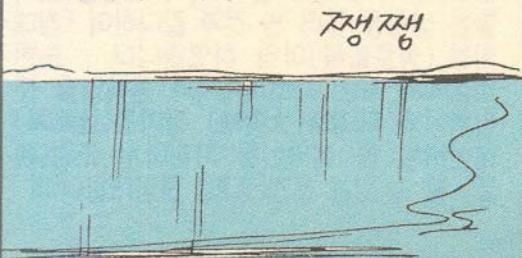
다음은 논산조양(論山朝陽)인데 논산이 속초에서는 가장 높은 곳인데 높아서 해가 뜨면 어디보다도 거기에 먼저 비쳤고 논산에 아침해가 비치는 광경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다음은 속초귀범(束草歸帆), 속초에서 보면 배가 들어 오는 것이 해는 저물고 석양빛을 받아서 둑대를 달고 돌아오는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상팔경의 하나인 원포귀범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서…



다음은 청호마경(靑湖磨鏡), 청초호수는 얼음이 얼면 마치 유리거울 같이 맑같게 보였다고 하고 거울을 갈아놓은 것과 같아 갈마(磨)자를 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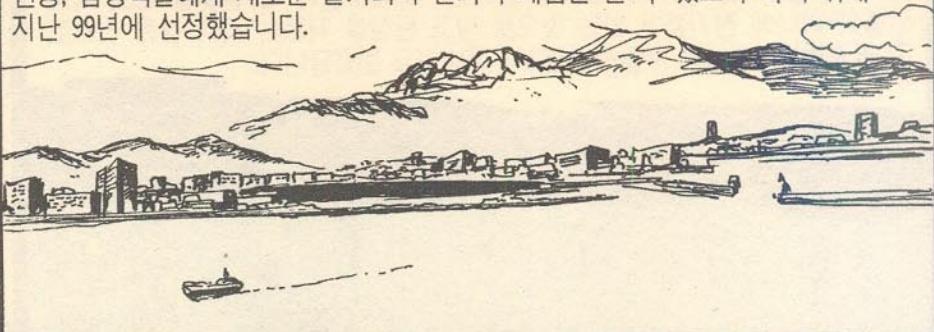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온정조하(溫井朝霞)라 하는데 온정의 아침노을, 지금도 온정에는 더운 물이 나오는데 옛날도 겨울아침이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안개 같은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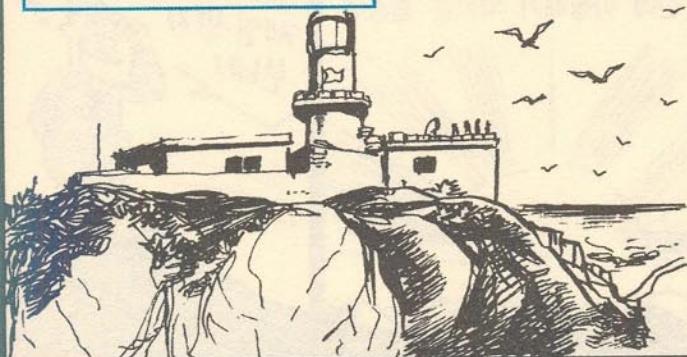


속초 8경

속초 8경은 속초시에서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고 있는 곳을 선정, 탐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9년에 선정했습니다.



영금정 속초등대 전망대



영금정은 돌로 된 산으로 파도가 쳐서 부딪히면서 신묘(神妙)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음곡이 「거문고」소리와 같다고 해서 불여진 이름이며 일제시대(日帝時代) 속초항(束草港) 개발을 위해 이곳 돌산을 깨서 축항(築港)을 조성함으로써 지금의 넓은 암반(岩盤)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주변 영금정 해맞이 정자에서 보는 시가지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금강산(金剛山) 자락을 조망 할 수 있어 자연의 조화로움을 더해 줍니다.

영랑호 범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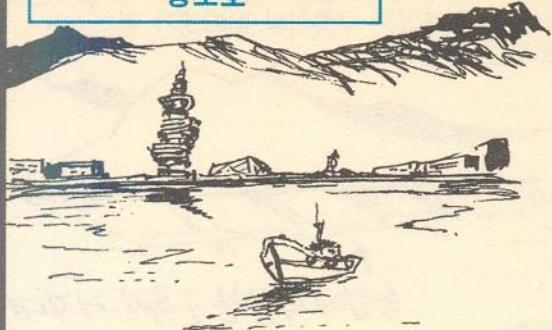
영랑호는 둘레 8km 넓이 36만평의 거대한 자연호수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록에 신라(新羅)의 화랑인 영랑(永郎)이 동료 술랑(述浪) 안상(安祥) 남석(南石) 등과 금강산(金剛山) 수련 후 귀향길에 명경같이 잔잔하고 맑은 호수에붉게 물든 저녁노을 웅대하게 부각된 웅크리고 앉은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물속에 잠겨있는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오랫동안 머물면서 풍류를 즐겼다 하며 그후부터 영랑호가 화랑(永郎)의 순례도장(巡禮道場)이 되었고 호수의 명칭을 「영랑호」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청대리 청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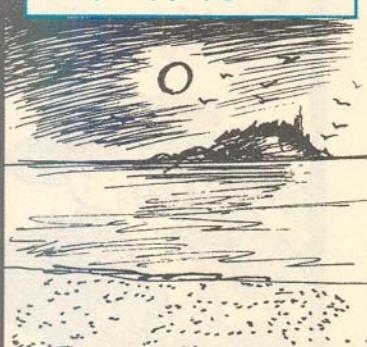
청대산은 해발(海拔) 230m로 주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그 푸르름으로 인해 '청대리'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는 우뚝 솟은 산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병풍을 둘러싼 것과 같다하여 「청대화병」(靑岱畫屏)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정상에서 보는 속초시가지와 동해일출 뿐만 아니라 대청봉(大青峰) 달마봉(達磨峰) 울산바위 등 설악산을 가까이서 조망(眺望) 할 수 있는 천연(天然) 전망대입니다.

청초호



쌍성호(雙成湖), 진성호(震成湖)라 부르기도 하는 청초호는 둘레가 5km로 술단지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양양의 낙산사(洛山寺) 대신 청초호가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운 호수이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 호수가 깨끗하고 맑아 마치 같고 닦은 거울처럼 빛난다고 하여 청호마경(青湖磨鏡)이라 불리웁니다. 20세기말 지구촌의 대축제인 「99 강원 국제관광 박람회」를 상징하는 73.4m전망대에서 본 청초호변 야경(夜景)과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동해일출은 한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조도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이라 하여 불여진 조도와 백사장(白沙場)이 어우러진 주변 경관의 조화로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소야 8경(所野八景)에 「논산조양(論山朝陽)」이라 하여 이일대 일출의 아름다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경관과 연계하여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 뿐만 아니라 해돋이 전망, 바다 낚시, 백사장 산책으로 각광(脚光)을 받고 있습니다.

대포 외옹지

설악산 기슭의 청정 바닷가에 자리잡은 대포(大浦)는 광어, 넙치, 방어 등 고급 생선의 집산지로 유명하고 백사장에 밀려드는 파도의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내물치 설악해맞이 공원



조선시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이 함경도 덕원에서 거제도로 유배되어 동해안을 따라 이곳을 지나 가다가 날이 저물어 머무르게 되었는데 폭우로 물이 불어 며칠 더 체류하다 떠나면서 「물에 잠긴 마을」이라 하여 물치(勿淄)라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에 탁 트인 맑고 깨끗한 동해바다와 조각공원, 소나무 사이로 비쳐지는 일출의 조화로움은 자연만이 연출할 수 있는 비경(祕境)이고, 잼버리 기념탑을 비롯 인어연인상 등 20여종의 조소작품과 야외 공연장이 있어 항상 풍성한 공연행사가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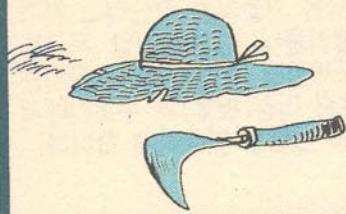
상도문 학무정



설악산 대청봉에서 발원(發源)되어 흐르는 쌍천변(雙川邊) 송림 속에 위치한 정자로 조선(朝鮮), 고종(高宗) 9년(1872년) 이마을에서 태어나 일생을 학문 연구와 인재 육성에만 전념하신 매곡처사(梅谷處士) 오윤환(吳潤煥) 선생이 1934년에 건립하였습니다. 정자 모양이 육각으로 되어 있어 흔히 육모정이라 부르며 남쪽에는 학무정(鶴舞亭) 북쪽에는 영모재(永慕齋) 북동쪽에는 인지당(仁智堂) 남서쪽에는 경의재(敬意齋)라고 쓰여 있습니다. 울창한 송림 속의 고즈넉함과 전통 한옥(韓屋) 마을이 풍취(風趣)를 더해 줍니다.

속초의 농업

속초지역은 영북 지역의 중심지이며 서쪽으로는 해발 1,708m의 설악산을 끼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해안에 접해있는 구릉지와 저지대가 형성되어 농업에 적합한 지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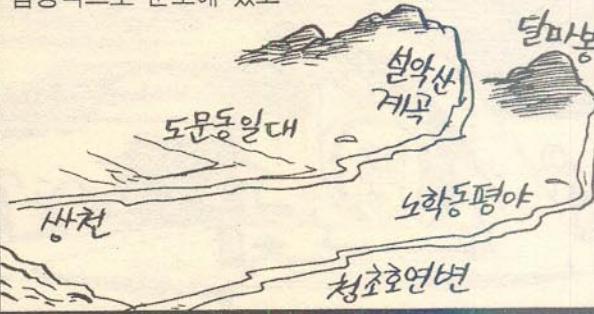
기후조건 상으로도 적당한 강수량과 일조량, 온화한 해양성 기후 등은 농업 입지 여건에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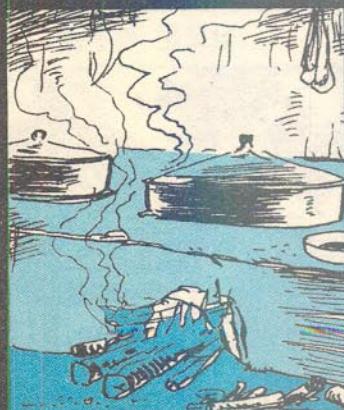
속초지역은 시규모에 비해 농업면적이 넓어 농업이 공존하는 2중적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의 농지분포는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흐르는 쌍천 연변의 도문동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평야 지대를 지나는 청초호 연변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고



속초시의 농지는 799ha로서 강원도 전체 경지면적의 0.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에 비해 농업 종사자는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속초의 수산업

수산업이라 함은 수산물의 채취, 번식, 가공하는 어업 양식업 및 수산제조업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속초시의 수산업의 중추적 역할은 1962년 4월 27일에 지정항(指定港)으로 되면서부터 동해안에서의 주요 어항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총 702척(1986년말)이 수산물 어획을 하고 있고



중요 수산물로는 오징어, 명태, 꼬치, 멸치, 광어로서 가장 높은 수산물 어획고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들 중요 수산물의 대상 어종의 어기(漁期)에 따라 많은 폭으로 변동이 있으며, 더욱 최근에는 연안 수산자원의 감소로 수산업에 대한 이직이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속초의 교육

속초에서 최초의 공교육(公教育) 기관은 1919년에 설립된 대포 공립 보통학교이고

현재 속초에는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4개 (남녀 각 2), 고등학교 3(남녀 각 1개, 남녀 공학 1), 대학 1개교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산가족 만남이 진행 중이지만 속초의 이산가족의 만남은 적은 편이고 그나마 실향민 1세대는 세상을 떠나 점차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통일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하는 절박함속에 놓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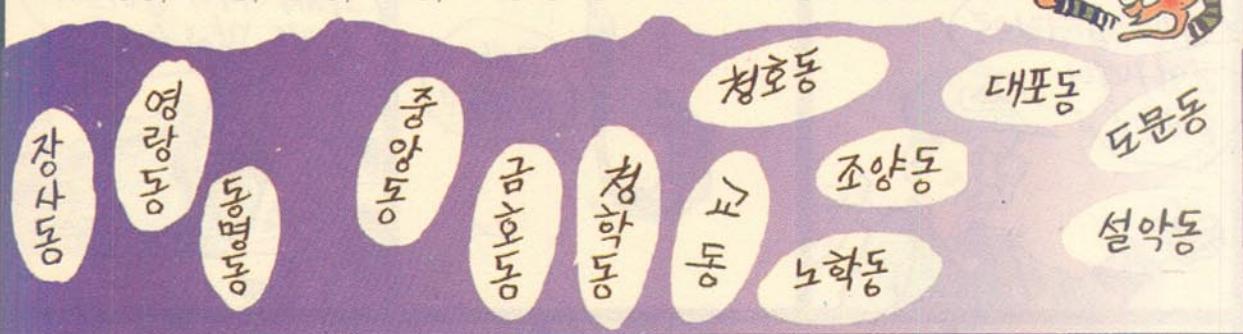
분단의 쓰라림을 빼져리게 느끼는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속초에는 실향민의 염원이 담긴 수복기념탑이 세워져 망향의 숨결을 달래고 있다.



▲수복기념탑



1966년 1월 1일 동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는 영랑동, 2구는 동명동, 3구는 중앙동, 4구는 금호동, 5구는 청호동, 6구는 청학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외 조양동, 노학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과 더불어 12개 동이 되었습니다.



1963년 시로 승격된 이래 속초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행정구역은 1998년 동 통폐합으로 13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지정되어 법정동 13개동, 행정동 8개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3년 시로 승격 당시의 속초 모습

1999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8만 9천명으로 199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속초시는 2000년 12월 기준으로 인구가 9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 상주 인구 15만명을 목표로 안락한 전원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면적은 104.9㎢로 강원도의 0.6%를 차지하고, 시 전체면적의 53.2%가 설악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악산을 끼고 있는 속초는 한국관광의 중심도시로서



1999년에는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강원관광의 위상을 빛낸 바 있고, 러시아를 경우하여 훈춘을 항해하는 백두산 항로가 개설됨으로 인해 북방개척의 전진기지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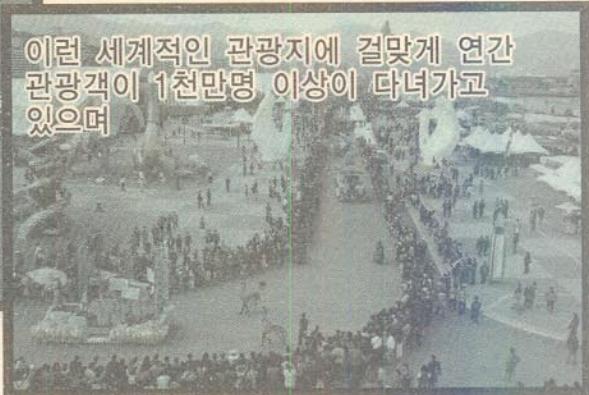


◀2000년 현재의 속초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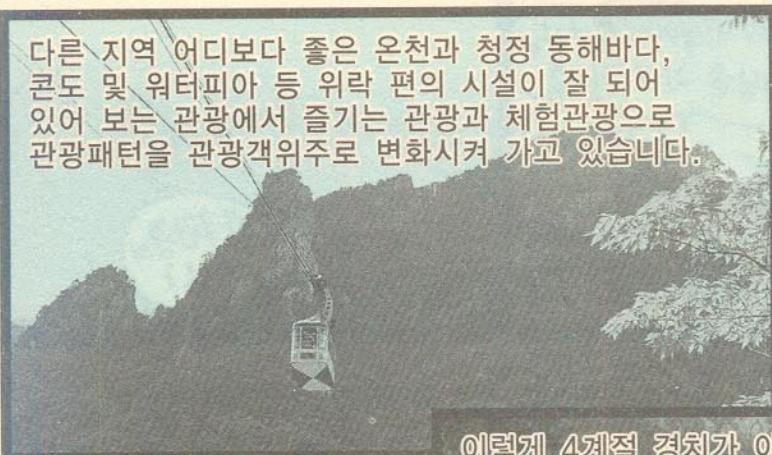
우리 속초는 산과 바다와 호수, 온천이 함께 있는 세계속에 하나 밖에 없는 유일한 천혜의 관광도시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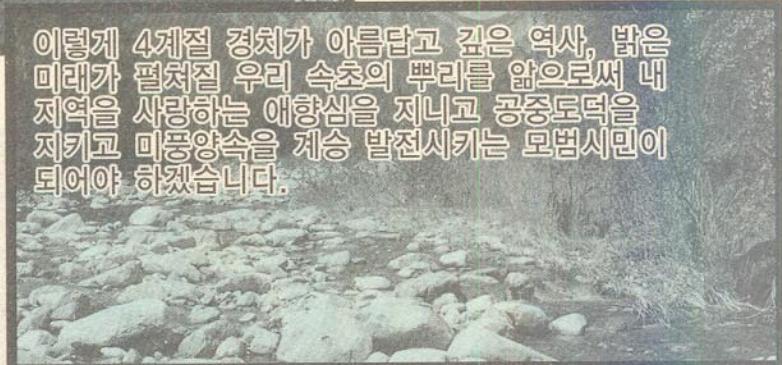
이런 세계적인 관광지에 걸맞게 연간 관광객이 1천만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으며



다른 지역 어디보다 좋은 온천과 청정 동해바다, 콘도 및 워터피아 등 위락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어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과 체험관광으로 관광패턴을 관광객위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계절 경치가 아름답고 깊은 역사, 밤은 미리가 펼쳐짐 우리 속초의 뿌리를 암으로써 내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지니고 공중도덕을 지키고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는 모범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를 보시려면
“속초의 뿌리를 찾아서(고등, 성인판)” 자료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또한 인터넷
속초시청 홈페이지
www.sokcho.kangwon.kr 문화유적과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만화로보는“속초의뿌리”를찾아서

2000. 12. 30 발행

발행처 : 속초시 · 속초문화원

발행인 : 속초뿌리교육 추진위원회

편집인 : 속초뿌리교육 편찬위원회

인쇄처 : 강원인쇄사(전화 : 632-5530)

〈비매품〉

● 향토뿌리교육 추진위원회

-속초교육청 : 박정치(교육과장), 최현규(초등장학사), 김충길(중등장학사)

-속초시 : 채용생(부시장), 김철수(문화공보실장)

-속초문화원 : 최용문(문화원장)

-속초시의회 : 최창영(의원), 김종수(의원), 백영철(의원)

● 향토뿌리교육 편찬위원회

-초등교사 : 박대성, 김용근

-중등교사 : 최종근, 신정남, 홍문표, 김시철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손병섭, 한은자, 김정환, 황양미, 박순자, 신창승, 김영준, 엄경선, 한정규

-조영길 : (강원도민일보 편집국 기자)

